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98호>
2002년 1월 16일(수)

두손을 다소곳이 모아 조심스럽게 무릎위에 얹습니다.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몸을 꼿꼿이 세웁니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 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수험번호 ××××, ○○○입니다."

설레임과 불안감, 기대감과 당혹감이 혼재하는
2002년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새롭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새해임에 틀림없지만,
올해는 유독 우리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계인의 축제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고,
분단 57년의 철책을
평화의 징검다리로 교체해야 하는,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의 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세상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 주어진 기회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수시모집 면접장안에서
사진 : 김천일 기자

신년특집 - 말(馬)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설

힘차게 뛰어 오르자

2002년 새해 첫 달이다. 올해는 여느 다른 해보다 많은 사건들이 있기에 무척 바쁘게 보내야 하는 해이다. 학내에는 총장선거가, 학외에는 총선·대선과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몇 년째 지속되는 청년실업 대란으로 블루멍한 미래에 불안과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과 냉소로 많은 것들을 지나쳐 버리기엔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너무 아깝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강한 말끔소리를 내며 힘차게 뛰어 올라야 할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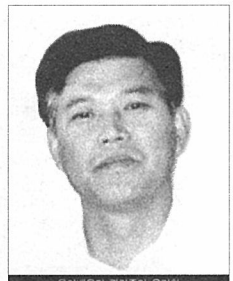
지난 해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학교에 임시이사파견을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이사파견으로 김씨 종친회 세력을 막아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우리 지난 4년이 부끄럽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재파견 결정은 98년 재단투쟁 이후 우리가 4년 동안 민주적인 재단구성의 실질적인 성과를 미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앞으로 2년은 학원 3주체인 교수·직원·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결기구를 미련하는 등 외대발전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8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총장선거는 후보 선정부터 선거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외에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우리의 투표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냉소를 넘어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올해도 낙천·낙선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의 입장에 설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이제 냉소를 버리고 대안정치를 모색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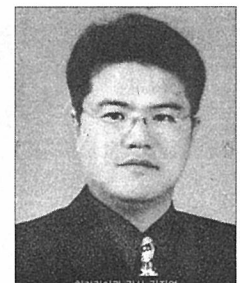
올해에도 역시 6·15공동선언 이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6·15공동선언 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 민족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쪽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그 반쪽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월드컵, 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 서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암울한 추함을 철저히 가리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양 포장해서 치뤄지는 '성공'이라면 진정 '실패'하길 희망한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계획과 성실한 실천없는 정부의 '노사평화선언' 추진과 '월드컵 대비 시민강경대처' 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국가대사란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원인해소를 통해 진정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월드컵이 되길 바란다.


용인배움터 권리주임 유기찬 (1954년생 · 49세)

외대, 다시 청마가 되길!

동양학적으로 보아 말(午)은 성품이 총명하고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며 활발한 활동성과 사교성으로 매사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장점과,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성품으로 불의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못하는 반면, 인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솔선수범하며, 간혹 다혈질의 경향을 가진 자가 있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1954년 4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창립, 그 날은 한 마리의 청마(靑馬)가 역사적 말굽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0일 후 당시로서는 아주 외진 촌 부락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 한 마리의 청마(靑馬)가 탄생했으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외대와 무관하지 않는 인연의 끈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은 1981년 외대에 입사하고 한 달여 후 4월 20일, 외대가 나와 같은 해의 동갑내기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참으로 묘한 감정으로 외대에 입사한지 흘적 20년을 지나 4번째 주기의 말띠 해를 맞고 있는 올해 솔직한 나의 심정은 외대와의 만남에 분명한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입니다. 48년의 세월이 그리 짧지만은 않을 터인데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청마(靑馬)의 여정에 분명한 안착점이 보이지 않고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98년(연산4년) 무오사화, 1882년(고종19년) 임오군란, 1894년(고종31년)갑오개혁 등 말띠 해에는 많은 큰 일들이 거듭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말띠는 팔자가 거세다는 우리 주위에 보편화된 낭설에 그것은 모두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론이며 허무맹랑한 속설에 불과하다고 도리질하면서도 근래의 어지러운 학교상황에 그저 낭설은 아닌 듯 싶어 운명론을 거들먹거려 보기도 합니다. 재미로 본 올해 말띠(甲午生)의 총 운은 익자삼우요 손자삼우의 격이며, 이해상반의 운이라 합니다. 애정과 권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하는 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두고서는 경쟁과 암투, 중상과 모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건 아닌 듯 하나 어쩌면 달리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외대의 현실을 꼭 집어 예언하는 듯 싶어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찜찜한 마음입니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들은 모두가 용기를 잊고 하나가 됨으로써 새로운 외대건설에 함께 해 왔습니다. 말의 특성과 속성은 달려야만 빛이 날 수 있기에, 이제 다시 맞는 말띠의 해에 나는 희망합니다. 우리 외대는 타고난 청마(靑馬)의 기질에 걸맞게 정체와 답보의 현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을 한해 다시 시작되는 힘찬 역사적 말발굽을 내딛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학내의 찜찜한 장애를 뛰어넘어 21세기 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항가리어과 강사 김지영 (1966년생 · 37세)

비 온 뒤에 땅 굳듯이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임오년 말띠 해를 맞아 외대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외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말띠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신 외대학보의 기획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시다닌' 이라는 말을 지극히 싫삼나게 했던 2001년도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간' 이라는 강물은 우리를 새해로 인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외대가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 해였습니다. 학내외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기도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진정으로 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에서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듯이, 이제 우리 외대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다져가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외대의 구성원으로서 모교를 위한 두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임오년은 외대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정체성 문제를 비롯하여 향후 성장방안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미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세인의 입에 회자되던 그런류의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정계획까지도 완비된-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모교 발전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외대생하면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영어를 필수로 잘하고 제2의국어는 양념(?)으로 하나 더 한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우들은 3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에 들지도 못했었습니다. 제가 모교 철학과에 입학한 1985년도에도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학사 경고가 평점 2.5 이하로 전국 최고여서 학기마다 1000명 이상의 학우들이 학사경고를 받았던 기억도 선합니다.

지금 강사로서, 모교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HUFSan 들을 바라보며 그때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외대 오면 공부 안하고는 못 배긴다' 던 세간의 명성을 다시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4학년 신윤우 (1978년생 · 25세)

세상과 충만한 호흡

폭동이나 다를 바 없던 2001 마지막 밤의 종로를 뒤로하고 나는 지하철에 올랐다. 지하철 속 사람들 대개가 흥분이나 설렘을 기대하기 보다는 어렵풋한 피곤과 취기(醉氣)에 지쳐 있었고 그것은 젊은이인 내게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모습과도 닮아서 우울했다. 최근 몇 년간 나는 계속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수업 때 말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른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성장의 과도기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속물적이고도 냉엄한 현실의 여러 문제들 덕분이기도 하다. 환승역에서 갈아탈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새해 자정이 되었다나 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어떤 목소리가 역내를 유쾌하게 울릴 때 나는 갑자기 거의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뭐야?" 하는 눈으로 그 목소리를 찾아 고개를 잠깐 휘두른 것이 그 인사에 대한 응대의 전부였지만, 곧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흐뭇하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하며 조금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 유쾌한 목소리는 새해가 남다른 기대로 충만해 있거나, 오늘 몹시도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님 술김에 한번 버럭 소리를 질러댄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목소리가 세상과 충만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근사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 순간 유쾌한 목소리 단 하나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금새 내 무기력에 대한 좋은 처방이자 새해 내 희망과 목표가 나아갈 방향을 얻었다는 것을 희미하지만 알아챘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며 잠재력이 충분한 것이지만 그 시작이 관점을 변화에서 오는 것이고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일기처럼 꼬박꼬박 할수록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쉽게 보이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흠흠,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

서울배움터 미화원 이봉주 (1942년생 · 61세)

말과 같이 힘차게, 즐거운 날들 되길

임오년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말띠 해입니다. 주위에서 말띠는 팔자가 드세다며 좋지 않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말이 착하고 슬기롭고 성실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육십 평생을 즐겁게 생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띠 해를 맞이하여 더욱 말과 같이 달릴 것입니다.

새해 소망은 저의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작년 눈 수술을 한 후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느꼈고 비록 잘 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해에 모든 일이 잘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시도록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 4년 동안 근무한 미화원으로 외대 학생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 분리수거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버리면 보기도 흉하고 지저분해 지니까 정해진 휴지통에 버렸으면 합니다. 둘째,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서 볼 수 있고 여러 차례 휴지통에서 불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학교 건물을 내 집 물건과 같이 아껴 쓰고 사랑했으면 하는 바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희망은 말과 같이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 저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대학원 경비반장 박병출 (1942년생 · 61세)

젊은 피여, 동면하지 말아라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사랑의 전령사처럼 동해의 과도 가르며 힘차게 솟아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날 회상하니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흘러 이제는 백발의 환갑나이.

암울했던 일제의 만행이 한참이었던 1942년(임오년) 속리산 자락의 농촌에서 태어나 말의 근성과 성실함으로 한 가정의 장으로 열심히 살아온 지난 추억들.

희열과 애환이 유성처럼 스치는 연륜의 주름살 엮어가며 세월 뒤로하고 젊고 생기 넘치는 한국외국어대학 장래가 약속 된 학생들과 호흡을 함께 한 지 어느덧 4년의 세월동안 때로는 분열과 반목 속에 갈등의 을부짖음도 있었지만 서로의 관용과 양보의 미덕으로 슬기롭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지혜가 있음을 보았다.

세계를 향해 달리는 한국외대생들에게 젊은 피가 동면하지 말고 함상 깨어있는 야생마처럼 항상 함께 하길 빌며 임오년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기에 전세계에 많이 홍보되어 부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외대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뒤 경희대 건물이 외대건물인줄 알고있어 좀 부끄러웠습니다. 학교 본관이 신축중인데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힘없고 소외된 자와 사랑을 함께 하는 외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터키어과 4학년 송창석 (1978년생 · 25세)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진일보하길…

"올해가 말의 해이니 다른 해보다 활기찬 한해가 될 것 같네요.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78년생으로 올해 4학년이 되는 송창석(동양·터키어 97)군은 2002년 말의 해를 맞는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그는 올 한해 치러질 행사들에 대해 "우선 5월에는 월드컵이 있고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는 선거도 두차례나 있잖아요 그리고 학내에는 총장선거가 열리고 하여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는 2002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중요한 일인 만큼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한다.

흔히 말띠 여자들은 드세다느니, 신수가 사납다는 등 많은 말들에 대해서 그는 "말의 이미지가 활기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 여자친구들을 보면 모두 활기차고, 술도 잘먹고, 남자보다 의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띠의 상격이 오히려 보기 좋아요 과거와 달리 이젠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하니 지금은 전혀 문제 될 것 없잖아요"라며 웃음짓는다.

개인적으로 취업이 많이 걱정된다는 그는 "요즘은 모두가 취직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월드컵과 선거로 인해 경기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는 모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일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몇 년만에 다시 부활한 터키어과 학생회로 인해 우리 과가 보다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말을 마쳤다.

새해인사광고

마알~~다알~리이~자아!!!

지금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말에 막 올랐습니다.
넓어진 시야로 둘러보니 웬걸, 온통 사막이군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
고삐를 잘 조이십시오. 한 눈 팔지 마세요,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사막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말의 거친 콧김처럼
거침없이 달려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세상에 하나 거칠 것 없다는 용기백배한 자세로 우린 달립니다.
말달리자~ 모든 외대인들 ㄹㅁㄹ년 화이팅!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분석 - 2002년 예산안

등록금 책정부터 '삐걱', 학부모 부담만 '가중'

등록금 의존율 79.7%, 평균보다 10.5% 높아

지난해 12월 28일(금) 1차 등록금 조정위원회의(등조위)가 열렸다. 이번 등조위에서 대학당국은 2002년도 가예산안을 제출, 등록금이 12.1% 인상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가예산안은 가결산조차 만들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가지고 만들어 정확한 예산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번 등록금 12.1% 인상은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해 75.9%였으나 올해예산에서는 79.7%로 상승했으며 2000년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인 69.2%를 크게 웃도는 비율이다. 한편, 2002년 예산안 중 등록금 의존율이 79.7%나 되는데 비해 사립대학 학생등록금 수입 총액과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직접 교육비 지출 총액을 비교, 분석 산출한 '교육비 환원율'(등록금을 100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오는 수혜의 비율)은 91.92%에 그쳤다. 이는 우리학교와 등록금 수준이 비슷한 서강대의 경우 98년 교육비 환원율이 135.8%에 이르고 포항공대의 경우 816%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교육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사학법인이 학교에 부담해야 하는 법인전입금인 경상비전입금(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 의료보험등〉으로 받는 전입금), 자산전입금(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중 자산전입금이 예산안항목에서 빠져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토록 되어있는 건설가계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려고 함을 보여준다. 올해 건설가계정으로는 본관 신축 공사 64억, 본관 설계 감리비 9천 7백만원, 용인 중앙도서관 설계비 5억 2천만원 등 모두 70억 178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대학의 건물 신·증·개축이 법인의 자산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단전입금을 높이고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대학당국은 자산전입금은 예산안에 올리지도 않고 등록금을 12.1%나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98년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에서 84.6%의 보유율로 20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수익용 기본재산보유액이 가장 많은 대학'에서도 10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98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551억 4224만원이고 이 중 토지 및 임야보유액은 501억 2417만 5000원으로 90.9%에 달한다. 학교측은 수익이 전혀 없는 자산을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익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교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빈부 격차에 의한 교육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당국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비감면은 전체 등록금 775억 9268만 8000원 중 98억 8450만 8000원에 불과하다.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실습비 역시 고작 전체 지출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171만 1000원이 책정됐다. 이는 총 학생수를 17086명(2001년 편제정원)으로 잡았을 때 1인당 6만 968원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가량이라고 했을 때, 이 중 1.21%만이 실험실습비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2001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계기구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PC구입비는 무려 3억 8359만원이나 학생들은 지난 해 PC가 늘었다는 것조차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측은 높은 등록금의존율을 전국 사립대학 평균까지 낮추고 월말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말에 가결산을 작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해야하며, 작성된 예산안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 예산안의 적자를 등록금으로 메꿔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지 말고 재단전입금 확충, 토지의 수익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과장 양영호씨는 "예산실무자로써 빨리 등록금 인상안이 결정되어 사업순위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김의연(정치외교 박사 1학기)군은 "석박사과정 이후 논문통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연구등록비 문제를 백지화시키고 등조위에서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강길수(동양·베트남어 98)군은 "재단전입금 수입은 작년과 똑같고 부족수입은 학생등록금으로 다 떼우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 되었다. 80%에 달하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학·마인어 98)양은 "등록금책정위원회는 4월에 합의한 사항이고 양배움터와 대학원이 함께 요구하는 것이며 반드시 공동투쟁으로 등책위건설을 이룰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재무구조의 개선, 등록금의존율을 낮출 것, 교육비환원율을 높일 것 등을 요구해 왔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 퍼센트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12%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참고 -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도 - 정시모집 결과

정시 경쟁률 전체 4.5:1

중국어과 양배움터 모두 최고경쟁률 보여

서울, 용인 양 배움터 정시모집에서 전체 2820명 모집에 12705명이 지원 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인배움터 '다'군과 서울배움터 '다'군(영어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 법학과, 상경계열)은 지난 12월 26일(수)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서울배움터 '나'군(전체모집단위)은 16일(수)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배움터의 일부학과를 '나'군과 '다'군에 분할모집했으며 총점의 10%를 차지했었으나 2000년도에 폐지된 논술고사를 '나'군 1차합격자에 한해 3% 반영했다.

서울배움터 '나'군은 1단계로 모집인원의 400%를 수능70%, 학생부 30%로 선발했으며,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지난 8일(화)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최종합격자는 수능 67%와 학생부 30%, 논술 3%(30점)로 선발한다.

'나'군에서 최고경쟁률을 보인 과는 중국어과로 60명 모집에 412명이 지원해 6.8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이란어과는 27명 모집에 171명이 지원해 두 번째로 높은 6.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상경계열은 161명 모집에 961명이 지원해 5.97: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다'군에서는 서울배움터에서 분할모집한 모든 과에서 중국어과 40:1, 영어학부 20.49:1 등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용인배움터 과 중에서도 중국어과가 3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 12.76:1 이라는 최고경쟁률을 보였다. 그 밖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로는 인문학부(101명 모집, 849명 지원, 8.41:1), 일본어과(30명 모집, 242명 지원, 8.07:1)등이 있다.

올해 입시에서 사회과학대와 법과대, 상경대는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유지된 것에 비해 어학계열의 단대에서는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 입학과장 정일환씨는 "서울배움터 '다'군에 우수한 학생이 몰렸으며 대부분 하향 안전지원을 했다. 교육부에서 백분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과에 맞게 지원을 했다"며 "논술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논술로 인해 학생들이 걸러진 것 같다"고 전했다.

<2000~2002학년도 정시전형 경쟁률 현황> (나군 / 다군)

대학	모집단위	경쟁율 '00년	경쟁율 '01년	2002 나군 모집	2002 나군 지원	2002 나군 경쟁
서양어대학	영어학부	5.17	4.38	81	222	2.74
				37	758	20.49
	불어과	5.23	3.81	77	182	2.36
	독일어과	4.46	4.19	78	179	2.29
	노어과	5.44	4.48	42	135	3.21
	서반아어과	5.06	4.16	82	254	3.10
	이태리어과	4.12	6.06	26	81	3.12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4.43	6.06	26	97	3.73
	네덜란드어과	5.33	7.24	27	111	4.11
	스칸디나비아어과	6.68	7.65	27	105	3.89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9.53	4.34	60	412	6.87
				18	720	40.00
	일본어과	7.18	5.15	59	162	2.75
				19	243	12.79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4.39	6.24	27	70	2.59
	아랍어과	5.28	6.77	47	172	3.66
	태국어과	4.65	8.00	29	123	4.24
	베트남어과	5.00	6.06	28	85	3.04
	인도어과	4.35	9.29	28	86	3.07
	터어키어과	5.05	11.65	27	130	4.81
	이란어과	6.52	12.41	27	171	6.33
사회과학	정치행정계열	5.40	5.24	79	287	3.63
	신문방송학과	8.78	8.39	41	239	5.83
법과	법학계	5.19	5.40	94	455	4.73
				38	564	14.84
상경	상경계열	5.45	5.44	161	961	5.97
				52	999	19.2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5.86	4.06	24	82	3.42
	불어교육과	4.52	5.24	26	99	3.81
	독일어교육과	3.65	6.65	28	77	2.75
	한국어교육과	3.71	4.73	24	122	5.08
서울캠퍼스 소계		5.54	6.48	1275	5099	3.99
		(2002 다군⇨		164	3284	20.02)
인문	인문학부	5.33	8.14	101	849	8.41
서유럽학대학	영어학부	10.12	4.37	89	397	4.46
	불어과	5.49	4.60	63	314	4.98
	독일어과	8.97	4.40	67	278	4.15
	서반아어과	5.34	5.11	63	245	3.89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5.80	5.39	47	231	4.91
	이태리어과	6.43	5.26	47	194	4.13
동유럽학대학	노어과	5.04	4.80	44	197	4.48
	폴란드어과	5.95	5.60	39	211	5.41
	루마니아어과	7.67	7.86	39	201	5.15
	체코어과	6.42	6.90	39	213	5.46
	헝가리어과	6.84	9.79	35	167	4.77
	유고어과	5.82	14.48	37	204	5.51
동양학대학	중국어과	11.71	5.32	37	472	12.76
	일본어과	14.09	7.91	30	242	8.07
	아랍어과	5.15	5.33	37	158	4.27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5.03	5.55	36	157	4.36
	태국어과	5.08	5.90	39	155	3.97
	아프리카어과	8.89	8.79	40	219	5.48
	인도어과	10.00	8.43	29	121	4.17
경상	경상계열	8.75	7.51	125	802	6.42
자연과학대학	수학·정보 통계학부	4.81	10.28	72	201	2.79
	화학·전자 물리학부	6.16	11.58	84	383	4.56
	환경·생명공학부	6.50	7.11	86	306	3.56
정보산업공과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7.07	6.95	87	261	3.00
	전자정보공학부	4.37	9.53	65	228	3.51
	산업 정보 시스템공학부	10.27	7.64	48	141	2.94
용인캠퍼스 소계		6.85	7.21	1545	·7617	4.93

보도 - 신임 임시이사진 파견

"정이사체제이행 발판삼아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지난 1월 1일(화) 우리학교에 새 임시이사진을 파견했다. 임시이사진 중 KPK통상대표 김필규씨, 연세대교수 이성호씨,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위원 김재열씨, 한국 야쿠르트 부회장 이은선씨 4명은 연임하며, KBS이사장 지명관씨,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김종인씨, 연합뉴스 사장 김근씨,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하진씨,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박재승씨 5명은 새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11일(금) 지명관씨가 교육부에 사의를 표명하여 고려대총장이었던 홍일식씨로 교체되었다.

이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어·노어 99)양은 "재단사유화를 획책하는 구재단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복귀시도에 의해 구성원들의 힘이 재단 공영화로 모아지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이사체제를 다시 한번 외대역사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헝가리어 95)군은 "김씨 종친회가 외대 진입에 성공하느냐 막아내느냐의 시점에서 거둬낼 수 있는 1차적인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후 재단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 지부장 심재영씨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정이사체제가 도움이 되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임시이사진은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 및 총장 중심의 자주적인 대학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천 등 각종 개혁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노력해 자주적인 재단이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송경숙(아랍어)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제 3기 임시 이사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정이사 체제 구성을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김씨 종친회를 중심으로한 재단 사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구성원들의 집요한 시도를 저지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교협은 민주적이고 역량있는 정이사 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새 임시이사진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인사무처 사무주임 허만정씨는 "이사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며, 이사회내에서 이사장은 선임한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등록금투쟁 · 민주외대 건설 결의

서울·용인 총학생회 공동 중앙운영위원회의(중운위)가 지난 10일(목) 건대입구역 근처 식당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양 배움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단대장 20명이 참여했으며 안건으로 △등록금 책정위원회의(등책위) 건설과 등록금 투쟁의 방향 △민주 외대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건설 이 상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모든 안건에 합의하였고 '연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헝가리어 95)군은 "공동 중운위를 공동확대운영위원회까지 이끌어 가자"고 전했고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노어 99)양은 "외대가 학자투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반갑습네다 조규철 총장이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추진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14일(금)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 문교성 부상(차관)에게 평양외대와의 교류협정을 위한 우리대학 관계서류의 협조문 초안, 교기 등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방중일정표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편입학신청 (10~12)	11	12
13	14 삼송장학회 장학생모집 (14~18)	15	16 ※서울배움터 정시모집 합격자발표	17 전과 원서접수 (17~18)	18	19
20	21	22 동계계절학기 성적확인	23	24	25	26
27	28 언론협의회 의장선거 (28~29)	29	30	31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2002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4~8)	5 전과지원자 학과별전형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과 확정자 발표일 ※2002년 1학기 등록기간(~22일)	16
17 서울배움터 신체검사 (17~19)	18 ※휴·복학원서 접수기간(~22일) 용인배움터 신체검사 (18~20)	19	20 서울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20~22)	21	22	23
24	25	26	27	28 용인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28~3/2)	3/1	2

진단 - 계절학기 무엇이 문제인가?

학문을 배우기엔 빠듯한 16일

제도적 보완 통해 강의일수 늘려야

대다수의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학점취득의 수단으로만 보고있다. 위는 계절학기 강의 모습.

"계절학기의 목적은 정규수업시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을 방학기간중에 이수하게 함으로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다."(외대일람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지난해 12월 26일(수)부터 지난 15일(화)까지 총 16일 동안 최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계절학기가 시행되었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외부 학생 500명을 포함 총 1500의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여 계절학기가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계절학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용인배움터 계절학기의 경우,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용인배움터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조은숙(인문·철학 98)양은 "처음 사흘간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학교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모현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조양은 또한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수업이 아니었다"라며 "수업전에 강의계획서를 볼 수 있게 하여 강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범(서양·포르투갈어 95)군은 "예정된 강사가 사흘 늦게 왔고 그를 대신한 임시강사가 수업내용을 몰라 수업진행에 어려웠다"며 강사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계절학기를 들으러 온 문주선(디자인 01)양은 "한반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발표기회가 적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태은(서양·이태리어 99)양은 "16일 동안에 레포트도 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은 무리다"라며 백짝한 강의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배움터에서 문화인류학을 강의하는 최혜자 교수도 역시 "16일의 기간은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데는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배움터 계절학기를 담당하는 교무과 수업주임 조수봉씨는 "16일의 계절학기는 백짝한 것이 사실이지만 학사일정상 어쩔 수 없다. 학생들도 빨리 끝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후에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첫 시간에 강의계획서를 나눠주도록 하고 있고 강의가 많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수강생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과 수업과 강사의 불만이 다수를 이룬다. 특히 수업과 강사에 대한 부분은 매해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라 학교측도 이에 대해 강사 선정을 여유롭게 하여 부적절한 강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강의를 바꿔주는 것 등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계절학기의 가장 큰 문제는 학문을 탐독하는 데는 너무 벅찬 강의 기간과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졸업을 하기 위한 학점을 따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인식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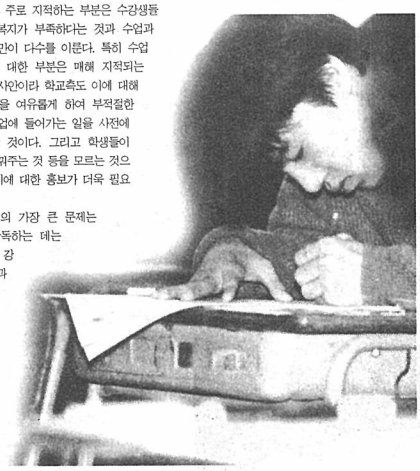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한 학생은 "계절학기의 목적은 학점취득이 아니냐. 학생들 사이에는 빨리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혜자교수는 "모자란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계절학기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너무 학점만을 생각한다며 학생과 교수간에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우리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계절학기의 성격을 새롭게 만든다. 서울대는 1년 3학기제로 가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겨울의 계절학기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는 일단 지난 여름부터 종전 5주에서 8주로 기간을 늘리고 개설교과목도 교양위주에서 탈피, 전공과목을 기존의 14개에서 32개로 늘렸다. 또, 이수가능 학점도 종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렸다. 우리학교와 두드러진 차이점은 계절학기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만 서울대는 계절학기를 정규학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 인용했던 운영규정의 계절학기의 목적이 학문을 탐독하는 대학에 걸맞게 다시 정립되어야할 때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16일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치뤄야 한다

기고 - 공장활동 체험기

"삶을 알아가고 배우는 작은 과정"

낙후한 환경 속 암울한 노동자의 현실느껴

장장 9시간의 노동이 끝나면 녹초가 된다. 사진 오른쪽이 필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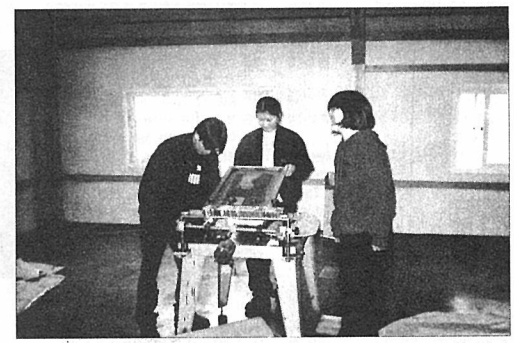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은 겨울방학! 내 머릿속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겨울방학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차 있었다. 1학년 때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전공공부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마음껏 다녀볼까? 하지만 지금 겨울 방학의 중심에 서있는 지금 나는 내가 계획했었던 그런 개인적인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고 집단속에서 자신을 찾아내야만 하는 공장활동이라는 나의 특별한 겨울방학나기로 인해서…

공활(공장활동의 줄임말)의 실질적 목표는 우리의 아버지들인 공장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고 그들의 고통과 애환을 공감하면서 학생 된 입장에서 우리의 할 일을 느끼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더해서 우리 내부 학생들간의 쌓였던 불신과 오해를 합숙을 진행하면서 집단의식이라는 지붕아래 서로 그것들을 허물어가는 것이다.

이번 공활은 각 단대별로 진행되었다. 우리 동유럽학대 공활대원은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 여섯명이였다. 같이 합숙하고 생활할 우리 숙소는 학생회실에 작은 생활방을 만들고 각자 집에서 조금씩의 생활도구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해서 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공장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생활 광고지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역시 생활영위를 위한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12월 28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공장에 나가기로 계획한 날짜보다 이틀이나 늦어져가며 어렵사리 찾은 공장은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거성토탈'이라는 회사였다. 담배자판기에 전시용으로 넣어놓는 담배곽을 인쇄해서 만드는 일! 일은 어렵지는 않지만 단순반복이라서 몇 시간만 계속 앉하면 사람을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는(?) 일이었다. 참 많이 놀랐다. 나는 그런 단순한 인쇄작업은 모두다 기계로 한번에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줄로만 알았는데, 일일이 한 장 한 장 전부 사람의 손으로 기계에 넣고 또 받아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업현실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람의 손을 모두 거쳐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왜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피곤하고 단번에 지치는 일을 매일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노고를 왜 모르고 있었을까? 아직도 우리 노동자의 현실은 너무 암울하다. 노동법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일터는 아직도 많이 낙후하다. 이런 현실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배워야겠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오면 피곤에 절어서 그냥 잠들어버리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단지 펴곤하다고 해서 그냥 지쳐서 자버린다면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집단주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있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모두 일정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다같이 다른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장을 좀더 방문해 보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서로의 힘들고도 재미있는 하루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단지 일만 하면서 노동력만 팔아먹는 공활이 아니라 더 생각할 수 있는 공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이런 방과 후 작은 모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공활대원들의 집단의식은 저절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말이다.



많은 양의 글이 아니라서 공활의 전반적인 면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공활은 어느 누구에게나 꼭 권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지금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활에 적응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나는 그러한 과정마저도 삶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고 믿는다. 집단주의의 실현! 그리고 사람이라는 어떤 형태로든 거쳐가야만 할 노동자의 삶! 우리의 작은 공활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알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알아가는 공활, 삶을 배울 수 있는 작은 과정을 나는 권유하고 또 함께 하지고 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오진호
(동유럽·노어 01)

여태껏 종이신문으로 살아 온 외대학보
외대학보가 800호(3월 11일자)을 맞이하여
「인터넷 외대학보」를 엽니다.
800호 동안 쌓아온 지면신문의 노력과
출발점에 선 인터넷 신문의 열정으로
새로 태어나는 '외대학보'가 되겠습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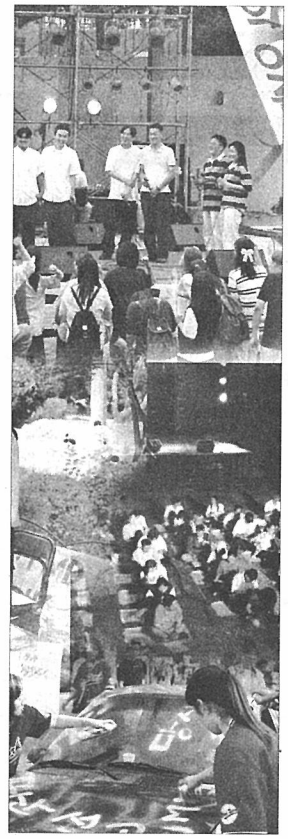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키워드로 보는 한국외대 2001년

권리

지난 해 우리학교 상반기에는 등록금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용인배움터는 수업 거부 총투표 결과가 50%를 넘자, 학교측과 23시간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결과 등록금 인상률 2%를 각과로 환원받았다. 또한 서울배움터는 등록금 인상률 2%를 복지기금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재단투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김씨종친회는 재단이사진 진입의사를 밝혔고, 이에 조규철 총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총장실이 점거 되기도 했다. 또한 김씨 종친회재단 진입 반대의 기치를 들고 교육부 1인 시위가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었다.



축제

일년 중 외대 전구성원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대동제. 올해에도 양배움터에는 대동한 마당이 연출되었다.

또한 외대인만이 할 수 있는 장기! 세민제를 통해 각과의 민속춤과 음악을 선보여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자랑했다. 연인과 함께 참여했던 용인 FBS 가요제, 서울 FBS 가요제도 '인디밴드'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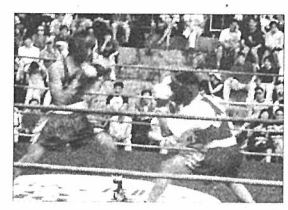
투쟁

학외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회적인 문제가 학내에서 유난히 많이 논의 되었다. 반미단식단은 30일 단식을 통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미국'의 내정간섭과 탄압에 대해 알렸다.

대동제 기간에는 학내 곳곳에 '조선일보 발기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모형감옥을 만들어 '국가보안법' 1인 시위가 진행돼 많은 이들의 사상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색



서울총학생회장에 김재연 양이, 용인부총학생회장에 우애나양이 각각 당선됐다. 이들은 외대 사상 최초 여성 총대표자이다. 올해 인기드라마인 '여인천하'와 시기를 같이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체육대학이 없어 우리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권투시합이 서울 노천에서 진행됐다. 흥미로운 경기진행으로 많은 이들이 손에 땀을 쥐기도 했다.

사진·글
사진부

임시이사 재선임, 그후 외대는?

"관선이사체제만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온당하지도 않다"

"총장 선거에 대한 구성원의 열의로 인정한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 송경숙 교수협의회 회장

"장기적인 학교발전은 정이사체제하에서 가능하다"

"총장은 전구성원의 대표인만큼 모두 참여해야 한다"

▶ 심재영 노동조합 지부장

"개혁은 사람과 제도를 변화시킬때만 성공할 수 있다"

"총장선출에 학원 3주체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 김남길 대학원총학생회장

"학문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총장선출과정은 김씨종친회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 윤상필 용인 총학생회장

■ 일시 : 2002. 1.14(월) 14:30 ~ 17:00
■ 장소 : 본관 108-4호 회의실
■ 사회 : 외대학보사 편집장 정호정(인문 · 철학 98)
■ 참가 : ▷교수협의회 회장 송경숙(아랍어과) 교수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지부장 심재영 ▷ 대학원총학생회장 김남길(법학 석사 1학기) ▷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 · 헝가리어 95)

※토론기사 전문은 외대학보사 홈페이지(http:\\hufs.hakbo.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한 토론회는 관선이사, 총장,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시정상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활기찼다. △관선이사 재파견에 대한 입장 △지난 관선이사체제에 대한 평가 △현 조규철 총장 평가 △차기 총장선거 △재단투쟁 평가 △차기 관선이사진의 과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대한 쟁점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역시 가장 치열한 토론은 차기 총장선출 과정을 둘러싼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간의 논쟁이었다. 하지만 대체적인 토론회의 분위기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 · 헝가리어 95)군의 표현대로 '가려는 목적지는 같으나 수단과 경로가 다를 뿐'이었다. 임시이사진 재선임, 그후 외대는?에 참가한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은 향후 민주재단 · 민주외대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그다지 멀지 않음을 희망적으로 보여줬다. 편집자

쟁점 1 임시(관선)이사 재파견

현시기 진정한 외대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체제가 최선인가.
관선이사 체제인가, 정이사 체제인가.
교육부의 관선이사진 재선임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송경숙 : 관선이사체제는 분명 최상은 될 수 없다. 차선일 뿐이다. 우리는 김씨종친회가 배제된 정이사체제를 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이사체제에 대해 우리와 다른 입장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이사회 임원선임 규정(사립학교법 제20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말함 - 편집자)에 대해 교육부는 '설립자의 친족이 참여하지 않은 이사체제는 정이사체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성원이 반대하는 김씨종친회를 재단에 참여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정이사체제도 도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교육부의 결정은) 최선은 아니지만 김씨종친회가 들어와 발생될 파장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영 : 우리는 정이사체제를 계속 주장했다. (그 주장에는) 여전히 변함 없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의 의견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이사체제 구축은 힘들다는 판단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선이사체제가 학교발전에 꼭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학교발전은 정이사체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윤상필 : 우리의 지난해 재단투쟁은 김씨종친회의 재진입 여부, 즉 일족에 의한 사유화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였다. 이번 교육부의 관선이사진 파견결정은 98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었던 상황을 구성원들의 힘으로 저지한 성과다. 물론, 기간 4년 동안 향후 외대발전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쟁점 2 관선이사체제

관선이사진과 총장, 학내 구성원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관선이사체제는 민주적 운영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는가.

▶ 지난 관선이사체제하에서 실시된 구체적인 정책(제도)에 대한 평가?

송경숙 : 관선이사체제만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온당하지도 않다. 과연, 관선이사진의 활동과 총장과 구성원의 활동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관선이사진만의 활동이란 있을 수 없다. 사실 관선이사진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일단, 관선이사체제하에서 실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자면 교원신규임용제도는 이전 제도에 비해 좀더 우수한 교원확보를 목표로 한 점에서 우수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했다는 점은 유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재단운영상 공개주의는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결산위원회 등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결산을 운영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였다. 외대발전에 좋은 기틀이 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김남길 : 관선이사체제하에서 도입된 정책들은 대부분 외대를 농단해왔던 구악세력들에 맞서 이들의 퇴진을 이루어내고, 민주적인 재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학내 주요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대안제시에 힘입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고, 과거에 비해 재단 운영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이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라 최종 심의기구에 그치게 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어렵게 논의된 안들이 총장의 비토로 무산되는 등의 한계를 노정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심재영 : 일단 학원안정, 부정비리 척결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시스템 구현정도에 있어서 의견은 들으려 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했는가는 의문이다. 정작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련하지 못했다. 또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재단이사회의 내용, 시기 등은 비공개였다.

윤상필 : 개괄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방식 채택이라 할 수 있겠다. 교원업적평가는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식화 · 개량화했다. 학문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쟁점 3 총장

조규철 총장에 대한 평가와 차기 총장선출 과정에 학원 3주체의 참여수준은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 현 조규철 총장에 대한 평가

심재영 : (현 총장은)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직무대리에서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이견을 조정하거나 하나의 힘으로 모아내는데는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공약(500억 모금) 등 당시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보면 상당부분 부족하다. 본관신축 등 학내시설개정, 감의실환경개선 등 환경개선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송경숙 :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제대로 못했다. 입기를 하루 더 할수록 외대를 추락시킬 뿐이다. 서글픈 일이다.

윤상필 : 초기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입기동안 보여준 현실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구성원들의 의견반영도 안됐고, 반영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사회까지 가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기구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조규철 총장 재임 중 형식적 · 절차적 민주주의로 전락했고 오히려 사장된 측면이 크다.

김남길 : 앞서 발표한 분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임시이사체제 입기만료를 앞두고 김씨종친회 입장을 옹호하고, 재임미련대책 없는 본관신축강행 등 전반적으로 현재 외대가 처한 현안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총장의 안이하고 그릇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심재영 : 역시 대체로 앞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란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만 얘기하겠다. 하루더하면 더할수록 학교가 가라앉는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장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 다음 총장선거에 대한 학원3주체의 참여문제

윤상필 : 지난 재단투쟁 과정을 보면, 교수사회가 일정 정도 줄서기식의 태도를 보였다. 세력재편과정이 있었다. 때문에 총장선출과정은 보이지 않는 김씨종친회의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풀 문제다. 이후 총장은 학교발전 의지가 확인되고 검증된 인물, 구재단과 연결관계가 없는 인물,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선출방식은 현재 방식(교수협의회에서 2인 선출 후 이사회 최종 임명)은 전체구성원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다. 선출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남길 : 총장선출 과정에 3주체가 적극 관여해야한다. 이 문제는 지난 1학기 김씨종친회냐 관선이사냐의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학교발전보다는 총장자리싸움의 양상이 있었다. 총장선출방법 역시 장기적 논의과제이다.

심재영 : 총장은 각 구성원들의 대표인만큼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다음주에 총장선출방식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다. 지난 8월 교수협의회 총회 결과 기존 방식대로 차기 총장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났다고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인 총장선출방식이라고 생각하며, 또 2년전 이사진과의 논의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한 형태의 총장선출방식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송경숙 :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총장선출은 중요하다. 교수협의회 총회를 통해 기존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각 구성원들의 선거참여 열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민주적인 기구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의결을 거쳐본 적이 없다. 대학평의원회가 민주적 기구로 정착된 이후에 전구성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심재영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그 방안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찾자는 얘기다.

송경숙 : 마치 대학평의원회가 민주적 기구인 것인 양 조규철 총장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날 교육부 관계자 면담시 서울총학생회에서 "총장님이 하시는 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는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제대로 구성돼야 하고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한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장선출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교수협의회는 지난 1월 1일 총장을 찾아가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장선출과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하겠다는 총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장 역시 신임 관선이사진에게 "총장은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해왔던 관례가 있고 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총장선출보다 총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에 전구성원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초청토론회'를 구상중이다. 학생 · 직원을 포함, 전체 구성원들이 총장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윤상필 : 굳이 대학평의원회가 아니라도 좋다. 그게 재구실을 못한다면 새로운 체제의 구성도 가능하다. 민주외대 특별위원회 건설이 우리의 제안이다. 일단 이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만 있으면 된다. 총장추천위원회 건설, 간접대표방식 등 구체적 방안은 그 후 논의하면 된다. 총장선출은 신중해야 한다. 김씨종친회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심재영 :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3주체가 참여한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실제로 다른 대학사례도 많다.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초청토론회를 한다는 교수협의회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초청토론회 후 3일 이내에 총장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일 동안 얼마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가. 단지 논의와 후보 소개일 뿐 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 아니다.

송경숙 : 열망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차기총장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이사체제(관선이사체제 종식, 투자역량 있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다. 그것 하나만 달성해도 차기 총장은 가장 큰 업적달성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노조는 지금까지 김씨종친회가 재단이사진으로 들어올 것을 주장했다. 과연 노조가 선거참여시 그런 총장(민주적 정이사체제 전환)을 뽑는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전구성원의 총장선거 참여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총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출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심재영 : 김씨종친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김씨종친회문제를 근거로해 이번 선거에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노조만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 구성원이 참여한다면 특정단체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투표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연한 모습이고, 투표권자의 성향에 따라 공약이 결정된다. 교수만의 총장이 아니라면 전구성원에게 투표권이 있을 때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송경숙 : 아직까지 만주적인 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 민주적인 역량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졸속 등의 위험이 있다.

쟁점 4 향후 관선이사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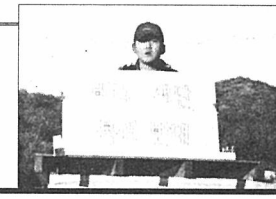
신임 관선이사진의 권한 내용범위 및 원활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향후 관선이사진에게 맡겨진 과제는?

송경숙 : 만일 김씨종친회가 재단이사가 됐을 경우 외대는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일 것이다. 물론 관선이사체제가 최상은 아니다. 김씨종친회가 배제된 민주적인 정이사체제가 최선이다. 신임 관선이사는 학교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과 의견을 재시할 때 그 길을 보장해주는 역할이면 족하다. 관선이사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꼭 2년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차기 총장이 능력이 있어서 (2년 안에) 정이사체제를 구축한다면 관선이사진은 이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 총장이 중심이 돼서 외대발전방안을 노력했을 때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 임무다.

심재영 :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의견을 듣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7면에 계속



신임 이사진 소개

이성호(연세대학교 교수)

[학력] 연세대 문과대 교육학과졸, 동대학원졸, 교육학박사(미국 조지워싱턴대)
[경력]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현),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교육학회 이사 연세대 대학원장(현), 교육개혁대학평가위원장(현)

박재승 (변호사)

[학력] 광주고졸, 연세대 정법대졸, 고려대 언론대학원 수료,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 군법무관 합격(1회, 육군 법무관, 사법시험 합격(13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현), 대학평가인정위원회 위원(현)

이온선
(한국 아쿠르트 부회장)

[학력] 국학대 법학과졸, 연세대 경영대학원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학력] 전남여고졸, 이화여대 사회학과졸, 이화여대 사회학박사
[경력]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연구소장, 여성정치세력시민연대 대표, 한국여성개발원장(현)

김근(연합뉴스 시장)

[학력] 전주고졸, 한국외국어대 서반어과졸, 서울대 신문대학원 수학, 문학박사(프랑스 파리제7대)
[경력] 한겨레신문 이사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현), 연합TM&M 사장(현), 통일고문(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현)

홍일식
(홍사단 공동대표)

[학력] 고려대 국문학과졸, 동대학원졸, 문학박사(고려대), 연세대 철학박사, 양정고 교사
[경력] 민족문화연구소장, 고려대 총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의장(현), 세계노문화본부 이사장 겸 총재(현),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장(현)

김종인(전 대통령비서실 전 경제수석비서관)

[학력] 중앙고졸, 독일 뮌스터대졸
[경력] 서강대 경상대 교수, 독일 퀼른대 객원교수, 국보위 재무분과 위원, 입법회의 경제 제1 및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보사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11대국회의원(전국 민정), 민정당 정책연구소 경제1연구실장 , 정책연구실장, 12대국회의원(전국 민정), 14대국회의원(전국 민자), 무소속 국회의원, 외대 총동문회장

■ *김필규(KPK통상 대표)*
[학력]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경력] 우양프라스틱공업사 대표이사, 케이티케이통상(주) 대표이사, 국제무역인 클럽 회장

■ *김재열(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위원)*
[학업]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 취득
[경력] 한국학 연구교수, 한국외대 강사, 한국법인 보인학원 이사, 학교법인 영남대 이사,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위원

임시이사, 재선임까지

- 9월 6일 - 서울배움터 2학기 첫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개최.
- 9월 7일 - 용인총학생회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재단 복귀를 전면 중단하고, 민주적 재단구성을 위한 특별기구 건설'을 요구.

- 9월 20일 - 서울총학생회 '재단 공영화와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 건설본부장 김종국씨의 집무실 집기 들어내고, 총장실 점거 돌입.
- 9월 24일 - 교수협의회(교협) '김씨종친회의 재단참여 반대'입장 확정.
- 9월 27일 - 한 학우 1000원 내기' 형식으로 신문광고 모금운동 진행.
- 10월 11일 - 200여명 교육인적자원부 항의방문.
- 10월 12일 -용인총학생회 학내에서 '구재단 복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 11월 14일 - '외대사유화를 반대하는 졸업생 일동'명의로 한겨레 신문 하단광고 게재.

김씨종친회장인 김종국씨 이 사진들에게 재단운영원칙과 자산목록을 전달.

- 12월 5일 - 서울배움터 신임 대표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
-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시이사진 재파견 결정.

총장선출방식 분석

구분	간선제 · 임명제	입후보 후 선출	직선제 교황식 선출	학생 · 행정직 참여 선출
선출주체	이사회	교수	교수	교수+학생+직원
선출방식	이사회 임명	최다득표자 선출	최종 2인선출 후 이사진 결정	교수+학생+직원
최종승인	이사회	교수회 또는 이사회	이사회	자동승인 또는 이사회
문제점	• 비민주적 · 파벌형성 우려, 전횡과 부정부패 가능 • 다양한 의견반영 봉쇄	• 선거과열 후유증 • 총장선거의 정치화	• 유명세에 따른 총장선출 • 소신있는 후보 제한가능	•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 농후 • 후보자에 대한 인식부족 우려

이사진의 전횡과 부정부패의 문제 등으로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낳는 임명제. 그 문제점을 보완한 해결책으로 직선제가 부각되었다. 이런 직선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입후보 후 선출 방식은 일정수의 교수들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 인기공약 남발과 인신 공격성 비난, 교수 파벌형성 등으로 인해 선거과열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방식인 교황식 선출 방식은 교협내 구성원들이 각각 2명씩을 천거해 그중 과반수를 얻은 2명을 이사회에 상정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겉으로는 입후보 후 선출방식의 폐단을 보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대학 내 보직교수 등 익히 알려진 인물들만이 총장이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소신을 가진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 행정직 참여 선출방식은 위의 두 방식과는 달리 낮은 비율이더라도 교수 이외의 학생과 직원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후보자들과 구성원들 사이에 교류가 부족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김종원 기자
beprees@korea.com

민주적 총장선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참여와 함께 '중간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이루어야

각 사립대 학교법인 정관의 기준이 되는 학교법인 정관(준칙) 제90조 제2항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 ·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이렇듯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최고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은 학교의 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며 교 · 직원 임면 및 보직 임면권, 교과운영권과 학사운영권까지 학내의 거의 모든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런 막중한 권리를 가진 자리인만큼 총장선출을 둘러싼 학내 3주체(교수, 학생, 직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교수', '직원', '학생' 즉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 3주체 모두가 총장선거에 참여하여 전체의 동의하에 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참여 방식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현재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은 학내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선거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선출, 이 두 후보자를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 사진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표 참조)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를 선정하는 교협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임의기구로서 집행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실태이다. 예를 들어 98년 선거에서는 교협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보가 총장이 되는 대신 이사진에 의해 재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후보가 독단적으로 임명돼 교협의 투표결과가 무시되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수 이외의 구성원(학생, 직원)들의 의견이 총장선출에 반영될 통로가 현재까지 열려있지 않는 문제 역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올해 실시될 총장선거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교협측은 "우선 교협이 공식기구가 되어야 한다. 학내 3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참여하기엔 아직 시기 상조다. 현재 교협내에서는 이번 총장선거에 앞서 학내구성원 전체가 볼 수 있는 '후보 초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반영 통로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라고 전한다.

직원노조측에서는 "총장은 교수들만의 총장이 아니다. 따라서 총장선거에는 학원 3주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총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현 상황은 너무 폐쇄적이다. 교수 · 학생 ·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각 대표들이 투표하는 간접투표방식을 고려, 신중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조규철 총장은 오는 8월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번 선거부터 학원 3주체가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신중한 결단을 요구된다. 학원 3주체가 모두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 후 안정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출된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총장 중간평가제'나 '총장 소환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풀어야할 문제는 산재해 있다. 학원 3주체가 힘을 모아 이를 하나 하나 풀어갈 때 민주적 총장선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원 기자
beprees@korea.com

➡ 6면에서 이어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에 있어 어차피 총장 임명권은 이사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남길 : 신임 이사진도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사진들이 주인된 자세로 외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단, 외대를 잘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윤상필 : 이사진의 권한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비록 이사진과의 요구와 배치된다 하더라도 반영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자신해각 등 관선이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쟁점 5 사립학교법 개정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약법도 진정 법인가.
사립학교법 제 21조 2항의 해석과 개정 방향은.

▶ '학교민주화쟁취 사학연대'의 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에 대한 의견

심재영 : 우리도 '학교민주화쟁취 사학연대'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우리의 한계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악법도 법이다. 사립학교법이 친족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부분 설립자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앞으로 사립학교법은 공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김남길 :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물론 시스템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소비적인 싸움에만 그쳐버렸다. 시스템이 나빠서인가?

외대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총장과 이사장이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개혁도 사람과 제도를 함께 변화시킬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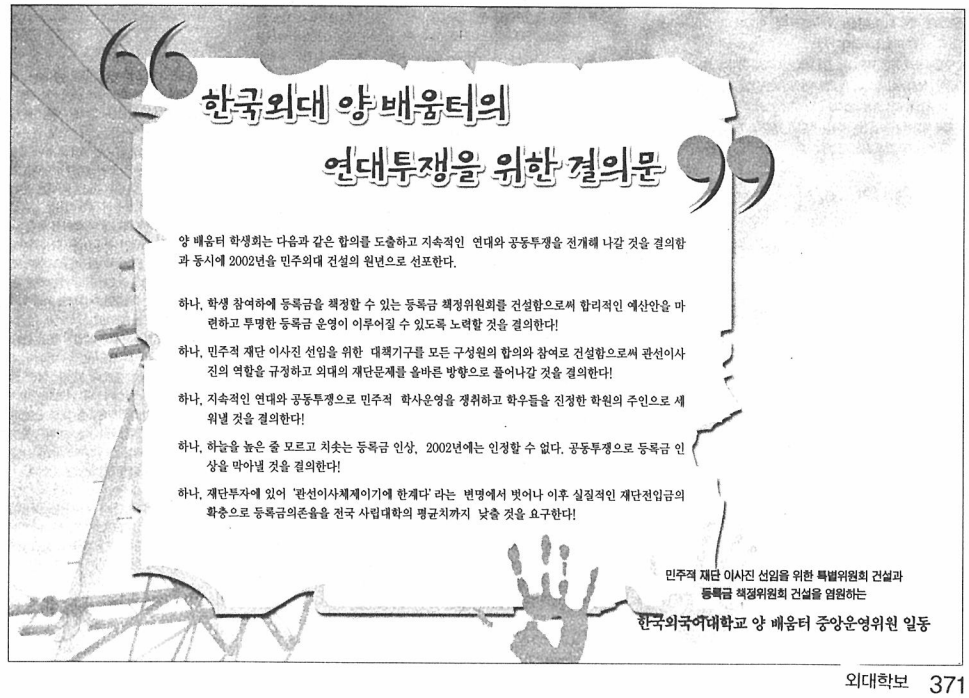
윤상필 : 많은 법학자들은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법도 아니다'라고 한다. 태생 자체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립학교법은, 남한사회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함께 2대 악법이다. 진정한 사립학교의 발전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없이 힘들다.

악법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약이 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다. 실제 지켜지지 않는 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일단 법이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건 문제다.

학교법인 자체를 일반 회사법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사고한다면, 결국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요원하다.

송경숙 : 사학연대의 개정 주장에 동의하며 보다 더 개선된 형태로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만이라도 개정된다면 전국사립대학의 학내분규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외대문학상 33회

소설

당선작 -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의 '가장 맛있는 식탁'

가장 맛있는 식탁

"당신이 보기엔 이게 먹음직스럽습니까?"

셋팅이 다 끝났다는 수신호를 기다리던 스텝에게 보내고 테이블에서 물러나는 미진에게 누군가 던진 말이었다. 여름 해변의 뜨거운 태양처럼 머리 위를 달구는 조명숲 안에서 쉽게 목소리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녀는 두리번거렸다. 환한 조명 탓에 눈 앞이 캄캄해졌다가 환해지자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앵글을 잡아보던 사진작가가 셋팅된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런 그의 질문에 답변을 찾지 못하다가 수십초 후에야 그 말의 본래 의도는 그녀의 작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비난이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무시했다는 수치심으로 머리털이 쭈삣 서는 느낌이었다.

미진은 처음부터 내키지 않는 촬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거절하지 못한게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꽤 이른 시간 다급하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로 깊은 잠을 끄응 일으켜세운 것부터 오후 4시까지 나올 수 있겠냐는 요구조의 촉박한 섭외까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이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연락을 줬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쪽 일을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초보가 성깔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 좋을게 없다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순순히 승낙했던 것이 실수였다. 요리 코디네이터 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생긴 미진의 직업은 요즘 꽤 잘나간다고 입을 모으는 유망한 직종이었다.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예전과는 달리 남다른 분위기나 새로운 메뉴들로 승부하는 외식산업이 호기를 맞으며 홍보용으로 팜플렛이나 카다로그를 만드는 일은 의례적인 일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인정하고 여기저기서 섭외해오는 일거리는 많은 실정이었다. 게다가 잡지 화보, 별책부록, 요리책 등에도 그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미진은 아직 유학에서 돌아온지 얼마 안되는 초짜였으므로 별다른 항의 없이 고개를 끄덕여준 것이었는데...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며 나온 촬영장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기본 컨셉 회의부터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고 협찬사와 디자인 결정권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재량인데 그런 기본적인 대우는 고사하고 마치 식모가 저녁 식사을 준비하듯 이미 준비된 접시와 컵, 식탁보 등을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그녀의 모든 역할이었다. 인지도 높은 노련한 스타일리스트를 섭외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대우였다. 그런 마당에 저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다니...이런 모욕을 주다니...하긴 퓨전이면 몰라도 전통 한식은 전공도 아니니 좀 미숙한 데가 있긴 할테지만 기본 컨셉 방향도 제대로 숙지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무턱대고 상을 차리라고 하질 않나. 사실 한식 요리 세팅에 준비해놓은 꽃무늬 식탁보라니...그녀의 감각만을 탓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미진은 저 촌스러운 꽃무늬의 식탁보를 잡아당겨 세팅된 음식이 담긴 식기들을 와장창 깨뜨려버리는 상상을 해본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설치는 저 자식의 놀라 휘둥그레진 두 눈과 새파래진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꽤 통쾌할 듯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유학에서 돌아온 후 2개월간 큰 건수 하나 잡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터였다. 아직 전속 계약도 없었고 섭외도 많지 않았다. 그저 미리 자리잡은 동료나 선배들의 소개로 이름없는 잡지사의 요리화보나 카탈로그 단발촬영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 정도였다. 고정 수입도 없는 터에 유학마치고 나오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출로 값나가는 원룸에 둥지를 튼 것도 무리였다. 그러니 참자. 참자. 참자. 미진은 분을 삭이듯 크게 한숨을 쉬고는 사진작가에게 씩씩하게 다가갔다.

"그럼...어떻게 할까요?"

미진은 비굴하다 싶게 가시 돋힌 마음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자, 조명 준비 됐지? 그럼 촬영 들어가자구!"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스텝들을 향해 싸인을 보내고는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느라 바빴다. 미진은 그의 냉담한 반응에 무안해져서 한동안 멍하니 그의 등 뒤에서 작업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도무지 배려라곤 줄 모르는 무경우한 사람이군, 미진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실력이 폄하된 것은 이 막되어먹은 인간의 비뚤어진 인성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의 단점을 더 꼬집어낼 심산으로 요목조목 훑어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즈음...귀밑까지 긴 머리카락은 덥수룩해서 지저분해 보였고, 카키색 사파리에 건빵바지, 복숭아뼈를 덮는 검은색 워커는 예비군 훈련이라도 방금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꾀죄죄했다. 실력없는 것들이 예술가랍시고 나 특별한 사람이요, 좀 봐주쇼, 하는 차림새로 나타나곤 하지...아내가 있었다면 남편을 저런 차림으로 출근시키지는 않았을테니 아직까지 결혼도 못한 모양이군, 미진은 코웃음을 친다. 저런 성격이니 여자들이 피해갈 만도 해. 게다가 저 행색을 보아하니 패션 감각이라고는 제로인가본데 꼴에 사진찍는답시고 설치기는...미진은 상상 속에서 그녀가 원하는대로 그를 만들어내고는 통쾌해하는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고 있었다.

몇가지의 식은 요리들만이 모델인 사진 촬영이 끝나니 8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뒷풀이를 하자는 스텝들의 작은 소요를 뒤로 한채 미진은 서둘러 촬영장을 나섰다. 그 시끄러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뿐더러 밀폐되어 탁한 실내 공기와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로 피곤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밤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 쉬니 훨씬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미진은 뻣뻣해진 목관절을 주무르며 고개를 꺾어 휘황찬란한 조명들로 가득한 밤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별이 가득한 새까만 하늘이 눈에 가득 찬다. 매연 때문에 한층 어두워졌다는 서울 하늘에 왠일인지 깨알같은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반쯤 기운 달도 제 몫을 다해야한다는 듯 꽤 환한 빛을 낸다. 별무늬 접시 위에 먹음직스럽게 접어 만든 크레페를 놓은 것처럼 괜찮은 셋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겠군. 미진은 직업병이야, 중얼거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목을 접는다. 그녀의 걸음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던 지프차 한 대가 곁에 멈춰 섰다. 미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 차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짙게 썬팅된 차창이 열리고 사진작가라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로 갑니까?"

미진은 그가 치한이라도 된다는 듯이 도도한 표정이 되어 그를 외면했다.

"같은 방향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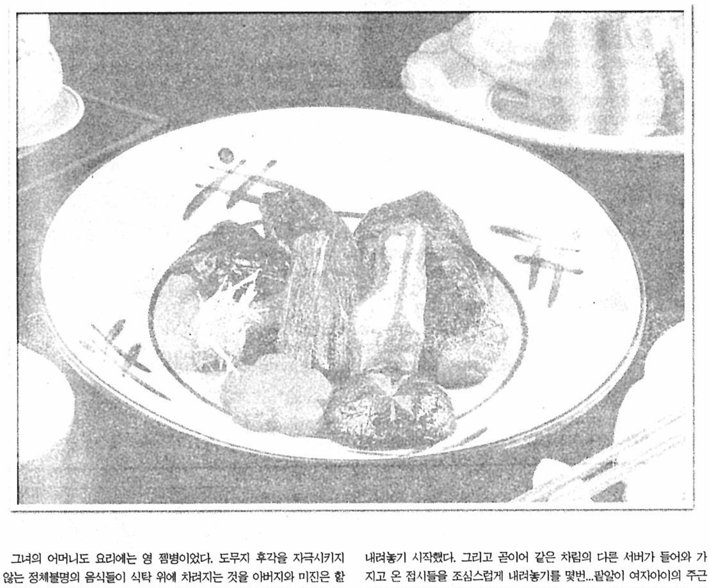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세지고 싶지 않군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냉랭한 말투로 거절 의사를 밝힌 후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남자의 앞뒤 없는 질문이 그녀의 목덜미를 붙들었다.

"요리할 줄 모르죠?"

들어보나 마나 분명하다는 듯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였다. 이 사람, 정말 뭐야...미진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의 어법에 당황했다. 실제로 미진은 간단한 전자렌지 조리 음식이나 라면, 달걀 후라이 외에는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었으므로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맛있어 보이게 장식하는 일이었으므로 그리 큰 흉은 아니라고 생각해 온 터였다. 물론 요리까지 잘 한다면 더 유리하다는게 이 바닥의 중론이긴 하지만...그래서, 미진은 친구나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직업의 허실을 운운하며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미진은 궁금한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의 얼굴을 무슨 말이냐는 듯 시침떼듯 쏘아보았다.



그녀의 어머니도 요리에는 영 젬병이었다. 도무지 후각을 자극시키지 않는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는 것을 아버지와 미진은 할 말을 잃고 쳐다보곤 했었다. 그래도 항상 예쁜 그릇과 무늬가 새겨진 알록달록한 냅킨들로 꾸며진 식탁을 보는 일은 즐거웠다. 특별한 날 저녁에는 반짝이는 촛대와 키낮은 꽃병을 놓아 풍성해지던 식사를 기억해보는 것은 지금에 와선 오히려 유쾌한 일이다. 그 시절에 식탁을 사용하던 가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수를 준비하며 굳이 식탁을 사야한다고 투박하게 옻칠된 작은 밥상은 싫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튼튼한 네 개의 나무다리때문에 접어서 옮길 수도 없고 의자까지 딸려와야 하는 부피 큰 가구가 아버지는 내심 못마땅했지만 어머니는 값비싼 보물이라도 된다는 듯 식탁보를 씌우고 식탁모양대로 잘린 두꺼운 유리를 덮고 마른 행주로 닦으며 너무 행복해했단다. 그러다보니 공부하듯 책상에 앉아 밥먹는 것 같던 어색함도 차츰 익숙해지더라고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신혼 시절을 추억하며 쑥쓰럽다는 듯 웃었다. 미진도 항상 식탁 위에 꽂아둘 장미나 국화다발을 사들고 들어와 꽃병을 찾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파스텔톤의 꽃무늬가 자잘하게 프린트된 홈드레스를 입고 키작은 미진을 위해 식탁의자 위로 두껍게 누빈 방석을 깔아주던 어머니. 예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의자에 앉아 있는 미진의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단정히 땋아주던 그녀의 눈부셨던 어머니. 미진은 그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만약 어머니가 여직껏 살아있다면 계속 같은 모습이었을까 상상해본다. 어쨌든 어머니의 음식 솜씨만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타요, 잡아가서 요리하라고는 않을테니."

미진은 그의 농담에도 전혀 웃지 않은 채 말못할 약점을 잡힌 사람처럼 그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차에 올랐다. 미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약간 놀라웠지만 단지 나의 요리 실력을 한눈에 알아챈 이유가 알고 싶을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할 핑계거리를 만드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미진씨, 난 정준석이요. 우리 저녁식사나 하러 갑시다. 따질 게 많다는 얼굴인데 든든하게 먹어둬야 힘내서 싸울 거 아뇨?" 미진이 조수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차를 출발시키며 그가 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훤히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말에 예의상으로라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얄미운 심사가 앞유리창만 빤히 바라보게 했다. 조금 더 유치한 방법으로 식사를 거절하고도 싶었지만 방금 전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촬영장에 같이 있었고 아직 식사를 못한 건 너무도 뻔한 일이었으므로 미진은 약속이 있다느니 이미 저녁을 먹었다느니 하는 둘통날 핑계거리 외에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시장기가 그녀의 빈속을 자극하고 있기도 했다.

〈중략〉

준석와 약속한 컨셉 회의는 시내의 유명 한정식 집이었다. 장소가 이상하다 싶어서 몇번이고 거듭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스텝들에게 비싼 음식까지 먹여가며 좋은 카달로그를 만들어달라는 의뢰인의 의도치곤 너무 호사스러웠지만 나쁠 것도 없었다. 식당 지배인의 안내로 들어간 룸에는 준석 혼자 앉아 있었다. 미진이 방안으로 들어서자 준석은 맞은편의 방석 자리를 그녀에게 권했다.

"다른 스텝들은요?"

준석는 그녀의 의아해하는 눈길을 웃음으로 받으며 말했다.

"눈치가 없는 편이군요? 내가 김미진씨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그때 창호지 문이 열리며 깔끔하게 검정색 유니폼을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올린 여자 서버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미진과 준석이 마주 앉아 있는 상 위에 갖가지 음식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같은 차림의 다른 서버가 들어와 가지고 온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기를 몇번...팥알이 여자아이의 주근깨 마냥 귀엽게 박힌 단호박죽, 미나리와 생굴이 맛깔스럽게 비벼진 생굴무침, 정성들여 구운 듯한 굴비, 붉은 살이 먹음직스런 왕새우구이, 우유처럼 뽀얀 국물이 우러난 비단조개탕, 기름기가 적당히 제거된 갈비찜, 갓 바다에서 건져온 듯 싱싱해보이는 회, 버섯과 죽순이 향기로운 볶음요리...셀 수도 없이 많은 접시들이 넓직한 상을 가득 채운다. 미진은 내려놓는 접시마다 휘둥그레진 눈길을 건넸다. 젓가락을 대기도 전에 입안가득 침이 고였다. 준석은 그런 미진과 음식들을 번갈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드시죠."

준석은 자신의 앞에 단단하게 접힌 흰색 냅킨을 풀어 무릎 위에 놓으며 음식이 전시물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미진에게 권한다. 그제서야 미진은 정신이 돌아온 듯 준석을 향해 따지듯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그쪽에게 이런 황송한 식사대접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꼭 어떤 의도가 있어서라기 보단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뜻이죠. 또 밥 한끼 같이 먹는 일이 대숩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는 한솥밥 먹는 식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농담과 너털웃음에 미진도 그냥 웃고 말았다. 기회라는 듯 준석은 다시 미진의 컵에 물을 따라주며 중간에 놓인 잡채접시를 미진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것 좀 드셔보시죠. 전 이집 잡채를 아주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자리에 들다가 문득 뭔가 먹고 싶은게 떠오르면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요. 왜 예전에 집 밖에서 고함지르고 가는 메밀묵, 찹쌀떡처럼 소리만 들어도 꼭 먹어야겠다는 사명이 생길 정도로 식욕을 당기는 그런 음식이죠, 제게." 준석은 메밀묵, 찹쌀떡을 발음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팔러 다니는 한밤의 장사꾼처럼 음절사이의 장단과 높낮이의 기폭이 심한 발음을 비슷하게 해보였다. 미진은 마지못한 듯이 그가 가리킨 접시로 젓가락을 가지고 갔다. 보기에도 잡채는 당근, 목이버섯, 시금치 등의 색색의 고명이 얹어져서 먹음직스러웠다. 실제로 당면은 적당히 퍼져서 쫄깃

당선자 공고

▲ 시부문 당선작으로는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양의 '매향리 전상서' 가 가작에는 최미라(동유럽 · 폴란드어 99)양의 '저녁' 이 선정되었다.

▲ 소설부문의 당선작은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양의 '가장 맛있는 식탁' 이 가작에는 윤세경(동양학 · 마인어 97)양의 배꼽의 역(驛)' 이 선정되었다.

▲ 수필부문과 평론 부문에는 김정영(일반대학원 화학과 3학기)군이 '불확실성의 원리' 와 '연가(戀歌)를 부르는 시인(詩人)' 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 희곡 부분에는 노진환(서유럽 · 독일어 97)군의 '제대후' 가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결정되었다.

하게 씹혔고 참기름의 향내가 느끼하지 않을 만큼 고소했다. 미진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라고 그 낯설지 않음이 어쩐지 푸근하다고 오래오래 그것을 씹어보았다.

"어때요? 맛있죠?"

준제는 닭강정 한조각을 집어가면서 그녀의 만족스런 표정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묻는다.

"네, 그렇네요."

"잡채라는 음식은 참 신기해요.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웬만한 긴장없이 재대로 된 잡채를 만들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십여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칼질을 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것들을 기름에 볶아내고 당면을 알맞게 데쳐내는 일은 일본일초를 더하거나 덜하게 되면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간장과 참기름도 더도덜도 말고 딱 그 만큼이어야 하죠. 적당히라는 말이 대충이라는 말과 동일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강습이라도 하는 것 같군요."

"하하. 그렇게 들렸습니까? 제가 잡채 얘기에 너무 열을 올린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만큼 요리하는 사람이 정성을 쏟아서 대접할 사람을 위해 재대로 만든 잡채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란 겨죠. 잡채에 쇠고기 대신 햄을 넣는다던가 양파가 너무 물러진 건 먹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조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한데 섞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양또한 여러 색깔의 조화에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여전히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문을 쏟아놓으며 준석은 잡채를 집어올렸다.

식사 내내 잡채 뿐 아니라 다른 음식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를 보며 미진은 이런 분위기의 식사가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적 새엄마와 살기 시작하면서 되도록 눈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라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었다.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보다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자율학습을 핑계삼아 친구들과 어울려 분식집을 찾았다. 새엄마가 싸준 도시락엔 언제나 좋아하는 반찬만 담겨져 있었다. 화려하고 맛있어 보였지만 빈 도시락통을 가지고 집에 간 일은 드물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도시락조차도 필요없었고 식구들과 어울려 식탁에 둘러앉는 일은 일주일에 한번도 어려웠다. 일본에서의 유학시절에도 비싼 하비 탓에 값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의 조리간편한 음식으로 때우는 세끼 식사는 언제나 우울했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룸에서 자신을 위해 뭔가 부산스레 만들고 상을 차리는 일이 번거롭게만 느껴져서 잘 할줄도 모르지만- 굶거나 중국음식이나 피자 같은 것을 배달시키는 게 편했다.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공기를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어색하면서도 참 유쾌하다고 미진은 생각했다. 그리고 맛깔스런 갖가지 찬 때문인지 분위기 탓인지 밥 한공기의 양이 아쉬울 정도였다.

그때 창호지문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열리더니 고운 한복차림의 중년여자가 쟁반 위에 모양내서 깎은 과일과 차를 내왔다. 그리고는 준석의 옆자리에 약속이나 한 듯 앉아 미진을 바라보았다. 미진은 그녀의 출현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준석의 태연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걸렸다. 지난번 국밥집에 갔을때처럼 미진만 어리둥절하게 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다. 중년여자는 그윽한 눈길을 미진에게 건네며 물었다.

"음식은 먹을만 했나요?"

미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이녀석이 여자분을 모셔온다길래 굉장히 긴장을 했더랬어요. 후후" 미진은 준석에게 이녀석이라는 호칭을 쓰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젊어보이는 나이였고 그렇다해도 여기가 가족까지 불러모을 만한 명분이 없는 자리지 않은가. 준석은 미진의 난처해하는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마주보다가 말했다.

"저희 누님입니다. 이곳 사장님이세요."

"네? 아...그러시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미진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편하게 앉아요. 그냥 얼굴이 궁금해서요. 애가 연애에는 너무 소질이 없어서 이나이 먹도록 누나에게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책이라고 흉보더래도 꼭 들어와보고 싶었어요. 나쁜에 불편하겠네. 반가웠어요. 그럼 이야기들 나눠요." 그녀는 한복치마의 옷자을 다잡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을 찾곶은 얼굴로 한번 돌아보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젠 준석의 설명이 필요한 때였다.

"많이 놀랬습니까? 제가 여자손님을 모셔간다고 특별히 준비해주십사 미리 연락을 해놓았더니...불편하셨다면 사과하죠."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준석씨와 특별한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좀..." "하하, 걱정마세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누님이 넘겨짚어 보신걸 겁니다." "사장님이시라구요?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을 일구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아직 혼자십니다. 그건 저때문인 거 같기도 하고...한평생 농부시니로 살아오셨던 제 부모님도 반은 책임이 있겠지요." "네?"

"제 부모님은...그래요, 그리 해장국집에서 봤던 그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는 음식이나 옷가지 하나 장만할 줄 모르시던 분들이었어요. 명절날이나 되야 집안에 기름내가 풍기던 검소한 생활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수하시며 사셨구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처로 나와서 누님과 유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빨리 눈뜬 우리 남매는 시골촌구석과는 다른 대도시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진 곳인지 알아버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의 삶을 곧잘 짜증스러워하고 돈도 안되는 농사일은 그만두시라고 강짜를 부리곤 했어요. 매끼 김치 한사발에 된장국이 달랑 놓인 밥상보다 누나와 함께 소세지도 지지고 계란도 기름에 둘러 후라이하는 우리끼리의 상팔이 더 좋았던거죠. 우리의 불평에도 말없이 답배만 태시는 아버지와 등등려 먼산만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뒤로한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따라 돌아왔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날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밥힌 부모님은 우리를 만나보려고 집을 나섰던 모양이에요. 고 사고였죠." 언제부터인가 준석의 목소리는 낮게 잦아들어 있었다. 물먹은 스펀지처럼 만지면 물기가 묻어날 듯 젖어있는 그의 목소리를 눈치채고도 미진은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물꼬를 튼 것처럼 쏟아지는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졸지에 가장이 된 누님은 남동생 끝까지 공부시키느라 자신의 학업도 포기하고 처음엔 조그만 노점으로 시작해서 몇평의 초라한 분식집으로 다시 테이블 몇 개 놓인 식당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날엔 한정식집을 차리고 싶다더군요. 맛있고 좋은 음식을 생전의 부모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그게 늘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러고 나니 혼기를 놓친 여인네 하나가 손마디는 굵어져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구요. 아버님, 어머님 제삿날은 무슨 잔치집 같아요. 그러면 누님도 명치 끝에 무언가 걸려있는 듯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 워낙 못되놔서 그런 것도 없지만요. 하하." 어색하게 웃어보이는 준석에게서 미진은 알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미진의 깊숙한 곳에 묻혀진 죄책감...이젠 아무 감정없다고 하지만 자신은 못된 자식이라고 인정해버리지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누구에게든 속죄하는 마음이 되는 그를 보며 미진은 가슴한켠이 시려왔던 것이다. 요리에 젬병이었던 하얗고 긴 손가락을 가졌던 엄마, 그리고 보는 것 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특별식을 준비하던 새엄마...그들 사이에서 엄마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새엄마를 미워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가족을 위해 정성으로 요리를 하지 않았던가. 누군가 먼저 피치못할 사정으로 떠나가고 그 지린 뜰 또 다른이가 채우게 되는 일을 그저 기울고 차오르는 순리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까. 그들의 사랑을 저울에 올려놓아도 그 중량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흔흘단신으로 아버지를 따라와 못된 전처의 딸에게 엄마소리 한번 못듣으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갖지 않겠다며 극구 아버지를 말리던 대화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을 때 미진은 잘된 일이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동생으로 대우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녀가 만든 음식처럼 그녀의 모든 애정을 거부하고 계워내려고만 했던 것이다. 새엄마가 미워서 그리고 예쁘고 손이 고왔던 엄마를 추억하기 위해 일부러 식탁을 꾸미는 직업을 택한 것도 미진의 비뚤어진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진로를 한때의 섣부른 판단으로 내린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엄마처럼 음식을 잘하기 보다는 고운 식탁보를 씌우고 촛대를 세우고 꽃을 꽂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그것은 또한 새엄마처럼 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시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소모전이었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 불리는 희귀종의 직업을 잡지책에서 발견하는 순간 이거다! 하고 호들갑스레 외쳤던 그녀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 지켜보고만 있는 이젠 늙어버린 노부부의 얼굴이 머릿속에 가득해졌다. 그들은 미진이 공격자세를 취했을 때 이미 백기를 들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항복한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국밥 한그릇 말아 먹고 돌아오는 길처럼 든든하고 온몸이 덥혀지는 그들의 사랑 앞에 말이다. 돌아올 주말, 아버지의 생신상 위에는 한평분의 여벌 수저와 젓가락, 밥이 고봉으로 담긴 밥그릇이 놓여있을 것이다. 미진이 그곳이 있던 없던 간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미진씨의 부모님은 두분 다 생존해계신가요?"

준석의 물음에 미진은 조금 망설인다. 그렇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두가지의 대답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 어느 것 하나 틀리지도 않지만 맞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요리학원에 가면 재료의 분량이 모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200g, 양파 두 개, 뭐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게 양념들이거든요. 소금 한 큰술, 설탕 두 큰술이라는 게 보통은 계량 스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스푼이 좀 불편해요. 국자를 축소해놓은 것처럼 예쁘고 장난감같긴한데 크기별로 여러개가 달려있고 손잡이도 짧아서 잘 쓰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냥 집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간을 맞춰도 맛의 차이는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미진은 준석의 말은 못들은 척 딴청을 피우듯 요리학원에 다니는 얘기를 두서없이 꺼냈다. 아직도 대답의 갈피를 못잡은 까닭이다. 차라리 피하는게 나을 듯 싶었다. 언젠가 당신처럼 모든 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다. 미진은 그런 준석의 반응이 오히려 불안했다.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일까. 무엇을 알겠다는 것일까. 그와 헤어지는 길에 준석은 미진에게 악수를 청한다.

"내일은 진짜 컨셉 회의가 있어요. 한정식 세팅 촬영이예요. 이번엔 좀 기대가 되는데...우리 잘 해봅시다. 아참 그리고 오늘은 내가 미진씨를 저녁에 초대했으니 다음엔 미진씨가 저를 한번 초대해야지 않겠습니까? 상다리 부서지게 잘 차린 요리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요리학원 수강생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발휘를 제게 해보시죠. 어때요?" 준석의 장난기 어린 말투에 미진은 웃음으로 답했다. 꼭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예상치 못했던 그의 대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주말 오후, 미진은 집 앞의 백화점으로 일찌감치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의 스웨터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아직 가을볕은 식지 않고 있었지만 백화점의 의류코너마다 벌써부터 겨울옷들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었다. 미진은 회색빛의 머리칼과 밝은 피부빛의 아버지에게 어울릴만한 수박색 브이넥 순모스웨터로 결정하고 포장을 부탁했다. 그리고 지하의 베이커리에서 케익을 샀고 대형 슈퍼마켓으로 가서 5인분이라고 씌진 담면 한봉지와 스티로폼 용기에 랩으로 포장된 쇠고기 300g, 붉은 피망와 파란 피망, 양파, 당근, 버섯 등을 카트 안으로 차곡차곡 담았다. 그리고 과일코너에서 딸기를 알이 굵은 놈들로 골라 포장용 바구니에 물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아직 철이 일러서 값이 비싸긴 했지만 새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비싼걸 뭐하러 사왔냐고 먹을 사람도 없다고 핀잔을 하겠지만 미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어릴적 미지 못해 따라나서던 시장길, 과일노점 앞에서

아버지와 미진이 좋아하던 복숭아와 바나나는 가격에 구애없이 사면서도 딸기는 가격만 물어보고 하던 새엄마의 입안으로 고이던 군침... 그럼 딸기 몇근 주세요, 라는 말 대신 그냥 돌아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 어쩐지 자신처럼 새엄마의 음식을 두고 먹지 말아야했,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골짜 참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백화점을 나오며 택시를 타던 길가의 꽃집에서 어쩐지 색깔이 촌스런 붉은 장미와 백합도 한다발씩 사안고 나왔다.

"저 왔어요..."

문을 열어주는 새엄마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다. 쇼핑백과 딸기 바구니, 비닐봉지, 꽃다발을 새엄마는 미진의 손에서 엉거주춤 옮겨 받았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역시나 기름내가 진동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갖가지 요리 재료들이 식탁 위에 조리대 위에 가득하다. 생선전을 부치다가 미진의 벨소리에 후다닥 뛰어 나온 듯 후라이팬 위에 노란 옷을 입은 생선전과 쟁반위에 밀가루 옷을 입은 대구포가 놓여있었다.

"혼자서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너도 좀 가져다 주고 그러려고... 앞집 은이네랑도 나눠 먹고...젊은 사람이 아주 야무져...은이도 니 아버지에게 싹싹하게 굴어서 예뻐하시고...바쁘다더니... 일부러 왔니?" 은이네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젊은 새댁을 말하는가 보았다. 하긴 손주들의 재롱으로 즐거워하실 때가 되셨지...미진은 새엄마의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변하기 시작한 것을 그때야 눈여겨 볼 수 있었다.

"그럼요...아버지 생신인데.. 유학마치고 처음이고 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든 와야죠." 미진의 사근사근한 목소리에 새엄마는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곧 오실텐데...마실 거라도 줄까? 거실에서 쉬고 있어." "아니예요. 뭘 많이 준비하신거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새엄마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미진의 살가운 태도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미진은 그녀의 등을 떠밀 듯이 해서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뭘 할까요?"

"아이고, 할 일 없다니까. 괜히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어서 들어가." "사실은요, 저 음식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배워야할 요리가 있어요." "든금없이...왜?"

미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오늘 저녁식사에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꼭 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제 촬영장소에서 만난 준석은 주말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거절할 수 없도록 으름장을 놓았고 미진은 아버지의 생신이라고 변명하듯 얘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준석은 포기하기 보다는 누가 오느냐고 어떤지라니냐고 꼬치꼬치 묻더니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진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준석은 싱글거리며 미진의 심각한 표정을 무마시켰다. 내가 정말 가면 안되는 자리냐며, 주말 저녁식사에 초대해주면 직접차린 음식으로 날 대접하란 말은 않겠다고 그저 성의만 표시해보라고...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들로 정신을 빼놓는 바람에 그냥 고개를 끄덕여버린 것이었다. 부모님께 뭐라고 그를 소개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동료인데요. 제가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그래, 잘 됐네...음식도 많고 여럿이서 먹으면 더 맛있지 뭐." "근데 꼭 뭘 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요. 잡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실줄 아시죠? 저 좀 가르쳐주세요. 요리책 보고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재료도 사왔는데..." 새엄마는 모처럼 미진 앞에서 활짝 웃어보였다. 그녀에게 이런 식의 도움을 청해본 일은 거의 없던 일이었다. 미진은 그녀의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식탁 위에 오늘은 꽃이 필요 없겠다고.

당선소감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

불통의 날들

내방의 무선전화기는 항상 말썽이다. 가끔은 접촉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거나 며칠전부터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또렷이 들려오는데 정작 내쪽에서 하는 말은 전화선을 타고 가지 않는다. 여보세요를 반복하는 나의 애타는 마음엔 상관없이 결국 뚝, 하는 수화기 놓는 소리와 함께 띠띠 하는 신호음만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한동안 핸드폰을 없애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편리하지만 족쇄처럼 채워진 그 기계에 모두들 한번쯤 자유로워지고 싶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다.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었다. 수업시간이나 버스 안에서 굳이 매너모드로 바꿔놓거나 전원을 꺼놓아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솔마시자고 밤새 놀자고 하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유혹을 거절해야하는 인내심 테스트에 응시할 기회도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좋았다. 아니 좋은 것 같았다. 난 아무때나 어디서나 전화 한통에 쪼르르 달려가는 할 일없고 상대하기 쉬운 관계가 아니니까 날 만나거나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아? 최대한 재수없게 말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미련없이 끊어버린다. 너무 열려있어 감시당하는 기분보다 더 비참해지는 건 왜일까. 다시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다니기로 한다. 접지와 닿지 않고 잘못 놓여진 관계는 서둘러 바로두어야 하고 툭툭 끊겨 전해지는 음성엔 빨리 안테나를 뽑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불통의 날들을 끝내고 그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싶다. 그렇게 글을 쓰고 더불어 뚜뚝해지고 싶다. 글쓰기 같은 이상한 일이 왜 하고 싶으냐고 되물으시는 부모님, 강원도 벽지에서 파이팅이라고 적힌 편지를 띄워주는 군바리 내동생, 어려울 때 기억나는 친구들, 따뜻하고 더러운 사월문학 그 구석진 방에서 만난 선배, 후배, 한때 같은 꿈을 꾸며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함께였던 동기들, 그리고 나를 그 깊은 우울과 열등감에서 건져준 그사람, 당신들의 이름만으로도 왜 이리 가슴이 더워지는지.

심사평

김남일 (세덜란드어 76, 소설가)

올해 신춘문에 심사를 보고 나온 동료 작가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왜 아니겠는가. 이 소설을 읽어도 저 소설을 읽어도 다들 거기서 거기, 도대체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아파트 베란다나 어두컴컴한 까페를 벗어나지 못하며, 도대체 왜 하나같이 뭔 생각이 그리 많아 눈동릴 때마다 자신의 사유를 대상에 투영하는지, 나중에는 짜증이 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일년 열두달 글에만 매달리는 문예창작과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런 혐의를 짙게 한다. 좋은 글은 어쩌면 글을 버릴 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이 서사라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소설은 이제 확실히 문체다. 개성이다. 기교다. '끼' 다. '개인기' 다. 나만의 독특함을 빼면 소설을 쓸 이유 같은 것은 별로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건 좋다. 다만 서사의 시대에서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제대로 배웠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일까?

삶의 핵심에 육박해 들어가겠다는 패기. 그리고 치열함! 대학문단에 기대를 거는 것은 아마 그런 덕목들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외대 후배들이 '문체의 혁명' 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기보다는 기성 문단의 상투성을 죽비처럼 내리쳐주기를 바라며 글을 읽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덕목들을 갖추지 못했다. 다소 치기어리더라도 소설적 화두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자세를 기대했는데, 아예 언저리만 맴돌다 마는 게 태반이었다. 그나마 [교차구간]과 [악몽]은 세상과 맞서는 자아의 고집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러나 전자는 화두 자체가 불분명하며, 사법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선입하사의 과거는 소설의 리얼리티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킨다. '법' 의 존재의미를 끈기있게 물고 늘어진 점이 돋보이는 후자는 대신 소설적 구성이 너무 빈약해서 더 이상 고려를 하기 어려웠다.

[배꼽의 역]은 소설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앞의 두 작품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화자를 포함해서 등장인물들이 적당한 선까지는 그 형상화를 돕고 있지만, 인연에 얽힌 주제의식을 결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구실까지는 소화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서사라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작으로 올린다.

당선작을 뽑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주진형의 두 작품 모두 상당한 습작 경험을 증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기억, 재생되다]는 그야말로 창년다운 패기대신 소설을 만들어내려는 옥심이 너무 승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체만 남고 "왜 꼭 소설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결을 게을리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반면 [가장 맛있는 식탁]은 소설로서 완성도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요리' 를 앞에 두고 새엄마와 엄마, 그 남자, 그리고 내가 일구어내는 삶의 이야기가 깊이도 있으면서 또한 깔끔한 게 자랑이다. 말하자면 문체와 서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아울러 소재에 대한 이 정도의 집중력과 관찰력이라면 앞으로도 꽤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이게 과연 자기 이야기 자기 색깔인지는 소설적 서사에 대한 부단한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 나가야 할 터.

자기 앞의 생을 치열하게 사는 자만이 소설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겉늙지 말고. 후배들의 정진을 빈다.

당선작 -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의 '매향리 전상서'

매향리 전상서

여보, 미안하오
나의 시야는 사살된 운명처럼 어두워지는구려
머리맡을 거침없이 지나가는 총탄의 흔적은
마치 우리를 옭아매는 촘촘한 거미줄같지 않소
어제 당신은 제초제를 너무 많이 뿌렸다오
그 냄새가 어찌나 역하던지
나는 전날 먹었던 저녁을 게워내고
그렇게 구토처럼 치미는 살의를 죽여야 했소
이제는 내 차례,그들과 다를 바없이
더 잔인한 포탄을 갖고 싶었던
나를 이제 잠재우고 싶구려
내 귀여운 아이에겐 아비를 죽인 것은
구멍 뚫리지 않는 절망이었다 말해주오
그들의 총성이 내 귓구멍을 막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먹고사는 일을 힘들어한
아비의 못난 성정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게 해주시오
나라는 뿌리는 잘라내되
독한 제초제는 더 이상 뿌리지 말고
너무 높이 자라거든 차라리 뽑아내어
척박한 땅의 거름이 되게 해주겠소
그리고 이제 떠나도록 해요
내 아이에겐 분노를 가르치지 말고
매일 죽음을 목격하며 버릇처럼
슬퍼하게 하지 말아주시오당신, 듣고 있는거요.
더 큰소리로 말해야 하겠소?

심사평

신경림(시인)

응모작품이 몇 편 되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최미라('할매생각' 외), 주진형('겨울판화' 외), 김성식('너의 방' 외) 등 재미있는 시들이 있어 심사자로서 즐겁다.

먼저 최미라의 시들은 균형 잡힌 감각이 돋보인다. '할매생각' 은 아주 새로운 발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대목 한 대목의 표현은 아주 실감이 난다. 사투리도 할머니의 이미지를 설명하게 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작품으로서 더 완결성을 보여주는 것은 '저녁' 이다. 고물상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결도 제법 잡아내고 있다. "자전거 굽은 등허리에 일기를 쓰듯 기억을 쌓는 / 할아버지 휘어진 어깨를/ 사그라져 가는 햇살이 조용히 감싸안는다" 같은 길구도 퍽 인상적이다. 굳이 흠을 찾는다면 너무 노숙한 점이다. 이에 비해 '뜨게질' 은 젊음이 풍기는 시이지만 좀 덜 정리된 느낌이다. "그대 조각들이....어느새 나를 가두는 그물이 되어 있었다" 같은 진술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닭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진형의 시들은 건강하고 힘이 있다. '겨울 판화' 는 매우 아름다운 시인데 후반부가 좀 엉성하다. 모호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겨울을 그린 판화가 삶의 알레고리로 읽히게 하는 에사름지 않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 '매향리 전상서' 는 시가 거칠어지고 범상화할 수도 있는 시사적인 소재인데도 그 굴곡을 잘 잡아내어 격조있는 시가 되게 하고 있다. 서간체란 자칫 시를 천하게 만들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의 경우 매우 타당한 형식이다. "내 귀여운 아이에겐 아비를 죽인 것은/ 구멍 뚫리지 않는 절망이었다 말해주오" 같은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부러진 우산' 은 너무 평범하다.

김성식의 시들은 실험정신에 넘치고 잇다. 그 중에서도 성에 눈뜰 무렵의 한 소년의 심리가 소재가 된 '너의 방' 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긴 시를 이만큼 재미있게 읽히게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덜 장황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보혜미안' 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 좀 더 명료한 이미지로 형상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선짓국' 도 매우 재미있는 작품이다.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데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힘, 이 학생은 그것을 가지고 잇는 것 같다.

이상 세 학생의 시 가운데서 주진형의 '매향리 전상서' 를 당선작으로, 최미라의 '저녁' 을 가작으로 뽑는다.

당선소감

주진형(동유럽 · 체코어 97)

인생이라는 마야(MAYA)

마야(MAYA). 인도의 삼신 중의 하나인 비스누가 얘기하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속임수, 마술, 환영, 사기라는 뜻으로 일시적으로 참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설명하는 이론. 쉽게 말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 진실일지언정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슬픔도 하나의 유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단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길고 긴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문득 억울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지난한 싸움을 해왔던 것일까. 모든 아픔도 유희일 뿐. 우리의 삶을 모자이크하는 하나의 거짓말일 뿐. 항상 가슴께에서 감지되던 종양같은 슬픔이 기적처럼 버석버석 말라 바스라지는 것 같았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쁨도 거짓이지만 진정으로 삶을 관통하여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시간들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니.

나는 철저히 믿기로 했다. 그리고 인생을 철저히 믿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고 싶었다. 생각만으로도 신비해지는 나라. 그래서 작년처럼 호된 추위를 피해서라도 올 겨울에는 꼭 그 더운 나라로 가야지, 했었다. 거리 위에 죽은 사람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바람에 삭히거나 새의 몸으로 다시 들아가는 살풍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죽음도 죽음이 아닌 곳.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지는 곳. 그래서 죽음이란 길 위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영원한 상실도 슬픔이 아닌 그곳으로 가는 오래된 바램을 나는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

그러나 오늘 갑작스레 거짓말처럼 날아든 이 소식 만큼은 마야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건 너무 큰 기대일까.

수필

당선작 - 김정영(일반대학원 화학과 3학기)의 '불확실성의 원리'

불확실성의 원리- 삶에 대한 어느 화학자의 변명

복잡한 실험기구가 즐비한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의 모습만큼 답답한 현실도 몇 안 된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소설 속에 과학자는 항상 외롭고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나르시스즘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된다. 과학 내에 세부적인 분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화학자에게 있어 앞선 일은 흔한 일상이다. 보이는 것을 인식하느냐 하지 못하냐는 질문이전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분자들의 세계를 상상하여 머리 속으로 그려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등을 비롯해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원자와 분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작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화학자에게 주어진 부담감이면서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정체성이다. 이와 같이 가능성이 없거나 미지의 세계를 분석하고 창조하는 일이 과학자를 억누르는 실체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실험실은 타인으로부터 멀어진 고립된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그 안을 들어다 보면 인간적인 면들이 숨쉬고 있다.

과학적 변명

1920년대 하이젠버그는 수학적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의 원리 즉,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라는 원리를 증명하였다. 이는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화학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다. 한번도 과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말아들이자면 그 전의 화학은 어떤 입자에 대한 성질 등을 비롯한 정보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이젠버그의 말은 근사적으로 입자에 대한 사실을 얻을 수 있을 뿐 그것이 입자에 그 자체에 대한 진실·진리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흔히들 과학적 지식은 명쾌한 사실이고 레고처럼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쉽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합리적·논리적·이성적이다 라는 말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 크나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부터 배워온 수학은 비논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설사 가정교육으로부터 배운다 할지라도), 현실 없는 숫자놀이에 지쳐 의미조차 우리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숫자가 지닌 의미를 규정하고 인정해 왔다. 0은 언제나 0이며, 1은 언제나 1로써 존재함을 인정하고, 수학적 전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의를 부정하면 수학은 어떠한 전개도 펼칠 수가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계산의 허점을 금새 발견할 수 있다. 가령, 2x+1을 x에 관해 미분하면 2가 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적분하면 2x+a라는 숫자가 되는데, a는 불확실한 숫자인 문자로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2x+1과 2x+a는 같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시작에 관계없이 결과값은 일치하지 못한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미분과 적분만 오고 가더라도 내부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이는 10이라는 숫자 앞에 0.1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는 근사법에서 비롯된다. 이 근사적인 방법은 수학적 명료성이 지닌 오류를 막는 보호막과 같다. 이 막은 큰 것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 대해 존재를 부정한다. 아니 없음으로 간주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컴퓨터 운영체계 중에 MS사의 윈도우도 운영 도중에 내부오류 메시지가 나오지만, 확인 표시만 마우스로 눌러주면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컴퓨터 전반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거대한 우연가에 대해 작은 존재가 어떠한 체계 내에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원리가 2차원의 영상으로 나타난 시례 중 하나이다. 과학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혹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작은 존재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특히 화학은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도 몇몇 존재는 부정되기도 하고,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논리적 후회

다시 실험실로 들아온다. 복잡한 실험기구와 화학자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체(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미세 입자들)를 되새김질하며 건축가처럼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무수히 만들어간다. 이 즘에서 우리는 이 외롭고 답답한 장면이 그저 단순한 흥미를 위한 묘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반응식을 생각하면서 그것 뿐이라 단언하며 조작했지만, 아주 단순한 실험반응식 A+B → AB가 되지 않고 새로운 C로 탄생한 것이다. 몇 주에 걸친 실험이 감행되었으나 이유는 미로와 같았다. 밤새워서 접근해 보기도 했고, 실컷 잠을 자고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실험해 보기하고, 운동을 통해 기분전환으로 처음부터 진행시켰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너무 뛴다는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 자존심이 발동해서,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어느 날은 하다가 지친 심신으로 인해 일찍 실험실에서 벗어났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려고 할 때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들렸다. 맨하탄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 수백 명 사망. 곧이어 수 천명 사망. 미국은 불현듯 터진 이 사건에 빈 라덴의 조직 알 카이다를 지목하였고, 뉴스는 이틀 밤낮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사태수습에 정신이 없었고, 세계는 빌딩에 민간 항공기로 자폭한 이 테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흥미나 재미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과 가족의 해체라는 무서운 인간적 고뇌를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다. 순식간에 맨하탄을 비롯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 가득 매었다. 한동안 주간지와 일간지는 이 사건을 화두로써 등장시켰다. 이런 바깥 세상과 분리된 필자의 실험실 역시 흔들렸지만, 그것을 모르는 원자와 분자들은 자신의 형체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실험을 되지 않았고, 원인을 찾은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막힐 때마다 읽는 영문 논문의 속독 솜씨도 빨라졌다.

다시 바깥 세상은 테러 보복조치로 행해지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관심을 두었다. 연일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명분도 없이 사라져 가는 그 드넓은 사막은 미사일 구멍으로 흠을 만들어 나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 폭격과 병사의 총소리는 그 나라를 덮으리라. 무릇 전쟁이라 함은 컴퓨터 게임과 달라서 생명이 오고 가는 빠아픈 고통이다. 이렇듯한 걸음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세상은 실험실에 있는 필자에게 화학의 미시 세계와 동일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심오하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삶에 공통성을 찾아내는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더라도 하이젠버그의 말을 떠 오릴 수 있었다. 동시에 무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시도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하려는 작업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미묘하고 하찮아 보이는 무언가를 잊어버릴 수 있다. 만일 그 작은 무언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면...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단백질을 이루고, 단백질이 사람을 이룬다면...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그 머리를 들어낼 때처럼 진리를 굳게 믿는 확고한 의지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제, 사회조직 간의 갈등 역시 큰 신념간의 충돌이다. 만일 두 가지 동시에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확고한 진리를 부정한다면 어떨까. 물론 다소 혼란을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혼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떫어지는 물을 담는 그릇 안에 물은 소용돌이 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지리와 위치를 찾아간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공통성과 일반성을 끄집어내고 통계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산출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미국의 전쟁과 테러나 필자의 실험 모두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신념들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기 싫어하고 쉽사리 믿고 숫자놀이에 변화의 가능성을 버리는 일들이야말로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고 때문이다.

다시 쓰는 반응식, 혹은 삶의 공식

반응식에 대해 재고할 의지는 없었는지 그 안에 벌어지는 무수한 화학의 현상을 단 한 줄의 지식과 생각으로 줄여서 생각하려는 우둔한 마음, 이와 비슷하게 종교의 신념, 우월한 국가를 만들려는 마음, 폭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 무엇보다 작은 것에 대해 절대적 멸시를 보내는 시선들... 우리가 사는 확신의 시대는 이러한 오류들로 가득하다. 컴퓨터가 계산하고, 인터넷이 정보를 종합하고, 전문가가 학문을 조종하는 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사라져 가는 작은 것들(인간적인 모든 문화)은 오류로써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입자를 이해하며 접근하지 못했기에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한 성급함이 실험의 긴 시간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보다 큰 세계에서 많은 일 역시 또 다른 면을 보기 위한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 오늘의 살아온 삶을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나열할 수 없듯 신념도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리듬과 같을지 모른다. 미사일 방어 사업으로 방어막을 자랑하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폭격을 맞듯 우리는 우리가 놓인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 무엇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원리)

한참으로 따들다 보니, 실험도 차분히 진행되어간다. A+B는 처음부터 AB가 아니었다. 그것에 대한 오류는 매우 작은 것(화학적 환경)에 비롯된 것이었다. 거대한 우주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경이롭지만, 이 미시적 세계 역시 장막에 둘러싸인 자연의 산물이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역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떠도는 물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신념은 그럼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라는 도덕경의 어느 구절처럼 확실하고 정답을 찾아다니는 인간의 행보는 그 근원부터 잘못된 기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런지. 서로의 신념과 작은 것에 대해 한 번쯤 믿음을 가져보는 일도 매우 큰 일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과학의 시대에 과학은 불확실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광고나 탤레비전의 비호로 점점 일반화를 걷는 이 시대에 한 번쯤 반대의 발언에 귀 기울어 봄이 어떨까.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지 않을까.

당선소감

김정영(일반대학원 화학과 3학기)

글쓰기를 통해 느끼는 그 무언가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와 시각적인 대화를 하기 보다 상상 속의 짜릿한 대화를 나눈다는… 그 기분만으로 하루가 웃음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사소한 미덕은 너무나 빠른 세월 앞에 조금씩 잊혀져 가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체온은 어떠한 철학보다 강력한 삶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먼저 느끼는 것이 산업혁명을 이룩한 뒤에 자본주의 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더더욱 인간적인 무언가가 그리운 날에 외대학보에서 만들어준 이 글마당은, 공간하는 시간과 느끼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주는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이 곳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이 곳을 통해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젊음이 많거든요. 생각하는 젊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매체와 매듭 없는 사상 안에서 중심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진실이나 진리는 치열한 사고 안에 있다고… 대학은 그렇게 제게 말합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무엇보다 수필을 뽑아준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마감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전해준 정혜윤 양과 이번 작품의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신 김연규 교수님과 채희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석사학위동안 꾸준히 같이 한 화학과 사람들과 학보사 사람들, 그리고 삶의 등불이 되어준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끝으로 거친 몸싸움과 치열한 입싸움으로 드넓은 세미나의 진수를 보여준 사월문학 , 한국사회연구회 후배들에게 열린 눈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평

김정진(문학평론가)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내면세계나 가치관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수필은 밖으로는 사회현실 인간의 가치관변화와 내면의 갈등 등으로 압력을 받고 내적으로는 그에 따른 글쓰기 양식의 재구성과 창조적 방법론과 순수성 등에 압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수필은 완전히 굳은 문학장르가 아니다.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수필이 아무리 변하고 삶의 양식이 바뀌어도 지켜야할 본령은 있다. 그것은 수필의 주체인 자아와 객체인 세계가 상호적인 교감에 입각해서 관계되는 것이며 자아와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외문문학상 수필부문의 후보작들은 소위 진실을 추구하는 수필의 본령에 드는 작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세계에 던지는 분석적인 시각과 예리한 감각들은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심의 대상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희정의 'A woman named '아줌마', 홍현철의 '서울의 달', 송주형의 '일상보다 일상적인 여행의 기록' 그리고 김정영의 '불확실성의 원리' 이상 네편이다. 김희정의 'A woman named '아줌마'는 우리사회에서 연속극이나 유머시리즈등에 한때 인구에 회자되던 아줌마라는 존재를 상당히 안정된 문장으로 그리고 탁월한 수준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수필이라기 보다 다소 보고서 같은 느낌을 주었다.

홍현철의 '서울의 달'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단상(斷想)을 컴팩트하게 그려냈지만 자신을 찾고 스스로를 형상화하는 완성도의 측면에서 다소 빛을 잃었다. 그리고 송주형의 '일상보다 일상적인 여행의 기록'은 마치 필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현장감있고 생생한 표현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듯한 문장과 풍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행문으로서의 마무리가 작품 전체를 감싸안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회한이든지 혹 미래에 대한 회구이든지 여행에서 겪은 자아의 심경과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었다.

김정영의 '불확실성의 원리'은 김희정보다 분석적이지 못하고 홍현철보다 감상적이지도 않으며 또 송주형의 현란한 문체보다 소박하다. 하지만 삶을 꿰뚫어보려는 필자의 심미안적인 지세가 돋보였다. 그리고 미세한 세계를 통해 거대한 세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도 새로웠다. 때문에 김정영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하였다. 다만 자신의 내적인 감성과 논리가 문장으로 분명하게 표출되지 않는 몇 부분과 오,탈자와 같은 세밀한 구석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외문문학상을 수상하는 김정영을 축하하고 앞으로 각고정려(刻苦精勵)하여 원하는 글을 보다 잘 쓰기를 기원한다.

희곡

제대후

가작 - 노진환(서유럽 · 독일어 97)의 '제대후'

전 · 의경구타방지시나리오

등장인물
어리버리(방구봉) / 뺀질이(김빈대) / 범수 / 부관 / 갈고리(밥때기)
어머니 / 호프집여주인 / 신병123 / 행(행기는 사병)
장비(장비괴리 사병)

제 1장

음향(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간주 부분만)
무대 조명 서서히 켜지며 호프집에 뺀질이와 범수가 앉아 있다. 주인여자 등장

주인녀 : 아 이게 누구야? 뺀질이 수경 아녀? 아 정말 오랜만이네.
뺀질이 : 수경이 뭐예요! 엄연한 민간인인데!
주인녀 : 그래 그래 미안해! 민간인을 몰라봐서! 작년겨울에 제대하고 처음이지? 아, 그런데 그 항상 같이 다니던, 좀 어리버리한 총각은 같이 안 온 거야?
뺀질이 :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아 우리 이쁜이 누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저 보고 싶었죠? (능글맞은 미소)
주인녀 : 그럼, 보고 싶었지. 우리 뺀질이 총각 없으니까 허전하드라고. 작년 겨울만했어도 근무 나와서 우리 집에서 땡땡이 많이 쳤잖아.
뺀질이 : 아주머니도 참 여전하시네. 땡땡이는 무슨 땡땡이래요? 잠시 휴게하고 가는 거지.
주인녀 : 아, 그래 그려, 알았어 알았어. 그냥 반가워서 그러는겨여. (젊은 과부 특유의 미소) 그려 뭐 먹을래? 이 누님이 서비스 많이 줄께.
뺀질이 : 죽여주는 마른안주 하나하구여. 히야시 이빠이 된 카스맥주 세병주세요.

주인녀 주문을 받고 퇴장

주인녀 : 오랫만에 와서 마른안주하고 맥주가 뭐야! 내가 서비스 근사하게 줄게 보리차 마셔!
뺀질이 : 일단 맥주로 축이고 나서 애들 오면 비싼 보리차 하나 시킬게요!
주인녀 : 역시 우리 뺀질이 수경이... 아참 뺀질이 민간인님이 뭘 안다니까! 알았어! 내 히야시 이빠이된 맥주 가져올게!

주인녀 나가자 범수등장

뺀질이 : 야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만이냐? 범수 너 얼굴 많이 좋아졌구나. 제대하니까 좋긴 좋은 모양이다. 돼지 같이 살만쪄가지고 못으면 앞이 막 안보이지 않냐?(범수처럼 웃어보이며 눈을 찡그려본다)
범 수 : 오랫만에 만나서 뚱뚱하단 얘기 밖에 할 말이 없냐, 임마! (앞이 안 보이는 웃음)
뺀질이 : 자식 니가 진짜 반갑긴 반가운 모양이구나. 니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다니. 언제나 무표정하던 네가 말야.
야! 그런데 어리버리는 왜 안오는 거야 시간 다 됐는데. 이 자식 또 어리버리 혜매는 거 아냐? 군생활 할때 그렇게 맞았으면 됐지 뭐가 모지라서 제대해서도 왜 그런다냐?

주인녀 마른안주와 맥주를 갖고 등장, 범수의 핸드폰 벨소리 울린다.

범 수 : 여보세요. 응 어리버리구나? 왜 아무도 안 나왔냐구? 우리 다 왔는데. 뭐 소갈비집이라구? 얌마! 내가 몇번을 말하냐! 왜 우리 방범순찰 나오면 뻘짓거리하던 호프집이라구!! 그래! 임마! 빨리와.
뺀질이 : 그 어리버리 여전하다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냐?
주인녀 : 아이고, 그 총각은 제대했어도 고생 좀 했겠어. 사회에서는 우리 뺀질이 총각처럼 빠릿빠릿해야지 고생을 덜 한다니까. (뺀질이를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본다.)

어리버리 비로 어리버리 등장한다.

뺀질이 : 어 왔네. 빨리도 왔다 짜샤. 빨리 앉기나 해 임마! 어쨌거나 한잔하자 반갑다 건배!
어리버리: 아따 맛 조쿠만이라. 근디 느그들은 은제 이리로 왔었다냐? 나가 조까 귀가 어두워 갖고 조매 헤매부렀다. 미안타.
뺀질이 : 자식 소대에서 암기사항 외울 때도 엄청 처맞더니 하여간 제대해서도 고생하는 건 똑 같잖아 제발 귀 좀 뚫어라 이 형님 소원이다.
어리버리: 아따 그 얘긴 또 왜 끄낸다냐. 사람 민망스럽게스리.
범 수 : 어때 재밌잖아.

암전-은근히 재미를 암시하는 음향
무대 다시 밝아지고 내무실. 부관은 누워 반쯤 감긴 눈으로 텔레비를 보고 있다.

부 관 : 야! 갈고리!
갈고리 : 의경 이상학
부 관 : 요즘은 애들이 왜그러냐! 이전 군대에 뺑이치러 온건지 휴양하러 온건지 통 모르겠단 말야!
갈고리 : 부관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 관 : 암기사항 암기하라고 한게 언젠고 담당구역에 개미빼끼가 들어와 미끄러 자빠질 정도로 미싱하우스 깨끗하게 하라고 한게 언젠인데 미싱은커녕 김치국물위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게 만드냐! 대가리 박아라!
갈고리 : 네?
부 관 : 대가리 박으라고 새끼! 귀가 먹었냐?
갈고리 : (부관의 말이 끝나자 마자 머리를 박는다)
부 관 : 야! 이상학!
갈고리 : 의경 이 상 학!
부 관 : 이 나이에 내가 갈구리? 너도 알잖아 나 태권도 5단인거 내주먹 스치기만 해도 니들은 뼈도 못추리고 죽는거야! 안죽일 때 잘해 새끼! 고참이 그 모양이니 졸따구들이 멋대로 나오는 것 아냐! 하여간 이번에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너부터 각오해라! 알았냐?
갈고리 : 의경 이상학 확실히 하겠습니다!
부 관 : 그럼 믿는다! 한 번 더 믿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엔 너죽고 나 사는 거야! 기상

〈중략〉

뺀질이 : 야! 니네들 누구랑 군생활 더 오래하냐? 괜찮으니까 말아 새끼들아! 아 씨발 안 말아?
신병123: (뭔가 결심을 한 듯) 네 알겠습니다.

결굴 무작정 말려드는 신병들에 의해 갈고리 모포에 말린다.

어리버리 : 야 빨어!

모두 달려들어 모포를 빤는다.

갈고리 : 아! 아이 개새끼들아! (끊임 없는 신음 소리)
범 수 : 참 이 새끼 액션 존나 잘 까네.

잠시 후 갈고리 조용하다

어리버리: 야 잠깐 왜 갑자기 소리가 안나냐? 이 새끼 기절한 거 아니여?
범 수 : 이 새끼 액션 까는 거야. (한 번 더 모른척 하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뺀질이 : 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까봐

모두 모포를 보며 놀람, 엠블런스 소리와 함께 암전
조명 서서히 켜지고 어리버리와 그의 어머니(어리버리는 기을 교육대에 갔다온 복장을 하고 있다)

어머니 : 나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길이다. 머리에 붕대 감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너의 고참보고 오는 길이야.
어리버리: ....
어머니 : 내가 깜해 자식을 키웠구나. 깜해자식을……
어리버리: 어머니, 그게 아니구요
어머니 : (감정 극도에 달한다.) 이놈의 자식아, 이 에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생각 없이 주먹질이나 하구 니 마음대로 살라고 했느냐고 이녀석아 ! 그래 니 마음대로 해 봐라, 깜해자슥먼치로 주먹질이나 하구 니 맘대로 살아보라구!
어리버리 :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 니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니가 그렇게 여러명에게 둘러 쌓여 맞았더라면 니 에민 그 놈들 찾아가서 죽여버렸을거야,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죽여버렸을거야, 이놈의 자식아!
어리버리: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 착하디 착한 니가, 왜 그랬어, 왜그랬냐구! 니가 주먹질을 하면 남들 괴롭히는 그 고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흐느낀다 사이) 츱진 않니? 밥은 먹을 만했고? 그래 그럼 엄마랑 병원에 같이 찾아가자구나.

갈고리의 병실로 이동한다. 어리버리는 갈고리에게 가까이 가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다.

갈고리 : 왔냐?
어리버리: (모자를 벗는다 초췌한 얼굴이 드러난다) 편찮습니까.
갈고리 : 이런 씨방새야!
어리버리: 시정하겠습니다.
갈고리 : (잠시 정적) 음, 곧 퇴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리버리: 죄송합니다.
갈고리 :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나가 더 미안하제.
어리버리: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갈고리 : 괜찮다. 이제까지... 많이 생각해봤는디 나도 사실 졸병 시절에 고참들한테 엄청 갈굼 당하고 맞기도 많이 맞으면서, 고참이 되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진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했는디 근디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니까 나 역시 졸병들을 갈구고 무지비하게 때리고 있는 그런 고참이 되어있더라고, 켕기는 마음도 있었지. 근디 어떻게 했는 줄 아냐? 거 있잖냐. 본전심리라는 거, 그게 꺼질 줄을 모르더라고 나쁜줄 알면서도 그런타성에 젖은 내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거터. 주위에서도 구타를 묵시하잖아. 그래서 나를 숨기고, 갈고리의 모습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날 끌고 간 거야. 다 그렇지 뭐, 나도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 구봉아! 네겐 정말 미안하다.
어리버리: (큰 미소를 짓는다)

암전 - 슬픈 음악
무대 다시 호프집으로 전환 다시 조명 서서히 밝아진다.

뺀질이 : 그러니까 제길 전?의경은 구타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지휘관이 좋아야 구타가 없지. 그런 좆같은 지휘관이 위에서 깨스 뿌리니까 줄줄이 내려오는 거 마시게 되고 신병들만 뭐지는 거 아냐. 흘륭한 아버지 같은 지휘관이 몇명이냐 있냔 말야.
범 수 :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도 않아. 그 갈고리가 우리의 천형이고 사회에서 항상 다시 볼 사이였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제대 후에 지금처럼 서로 웃으면서 술 한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는 고참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구타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 위로 올라갈수록 감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들 때 기억 못하고, 기억 하더라도 졸병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당했던 것만큼 당해야한다는 썩어빠진 본전심리나 지키려드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실 그게 따지고보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는 건데 말야. (어리버리 등장) 야 어리버리! 넌 화장실 가서 빠져 죽은 줄 알았다.
어리버리: 미안하다 임마! 오랫만에 맥주를 마시니까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려운걸 어쩌냐!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했냐?
범 수: 우리가 지금 그 얘기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남자 놈 셋이서...
어리버리: 맞는 말이여, 그때 야그가 빠지면 재미없지. 그나저나 막상 또 그 갈고리한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어봉께 지도 그런 마음은 없었는디, 생각 없이 지내다 봉께 그렇게 후회하게 되더라는 야기를 하더라고, 생각혀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제. 그 사람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든 피해자의 일종이여 그나마 우리하고 마음 터놓고 자주 얘기라도 많이 했으면 좋았을텐디 그런 기회가 없었던게 아쉬을 뿐이제. 근디 말이여, 나가 조깨 더 생각해 봉께 나가 졸병 때, 좀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잘못이 더 큰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디...
범 수 : 그래, 그 고참뿐만 아니라 졸병들도 마찬가지야. 힘있고 강한 자들이 횡포를 부린다고해서, 기회가 없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지내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야.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다가가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고참이나 지휘관을 제대 후에 어디선가 옛 고참이나 지휘관을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웃으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관계로 남겠다는 인간적인 마음만 있다면 구타사고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제대하면 쌩 깔거라는 생각이나하고 있으니 구타가 안 일어 날래야 안 일어 날 수가 없지.
뺀질이 : 맞어, 맞어, 됐어.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모두가 함께 노력했 어야 했다는 말이잖아.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그만하고 술이나 한잔하자. 자 앞으로 지휘관과 전의경들이 인간적으로 변하길 바라며! 건배!
모 두 : 위하여!
뺀질이 : 누님! 여기 비싼 보리차 좀 주세요!(큰 소리로 손짓을 하며)

서서히암전 앤딩음향(화이강의 다리)

심사평

김형필(시인 이한)
(한국어교육과 교수)

군인생활은 '제2의 호적'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다. 제의(祭儀)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처음 군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전우들이란 때에 따라서는 형제같거나 돈독한 정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리버리(방구봉), 뺀질이(김빈대), 범수, 갈고기(밥때기) 등도 매우 친한 사이이다.
몇 명이 제대 후 만나기로 한 호프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중에서 클라이맥스는 갈고기를 모포로 가리우고 집단구타를 한 것이다. 어리버리 일패가 신병 1.2.3과 힘을 합쳐 일을 처리한 것이다. 하극상. 어리버리 일패는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
어리버리 : 죄송합니다.
갈고리 :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나가 더 미안하제.
이렇게 일은 풀리었고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픽션이 가미되었겠지만 결국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지면 이야기의 한 토막인데 그 한 토막으로는 완전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야기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어리버리 일패의 내일이 있어야 한다. 내일이 담겨 있어야 하며 바다가 보이는지 어떤지, 하여간 어떤 ' 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선소감

노진환(서유럽 · 독일어 97)

1. 11 포근함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자본(資本)을 제외하고는 다재다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러나 아직은 많이 빈약한 나의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빚을 진 듯 하다. 어쨌거나 이 상은 내게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며,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당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활자(活字)로서! 끝으로 내 처음의 글을, 함께 했던 사월문학문우들과 시작하게 해주었던 보형씨에게 감사 드린다.
덧붙이는 소감
혹시, 나의 글이 조금이나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my.dreamwiz.com/azix/

당선작 - 김정영(일반대학원 화학과 3학기)의 '연가를 부르는 시인'

연가(戀歌)를 부르는 시인(詩人)

- 안도현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 (1994년, 문학동네)을 읽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시간은 묵묵히 관조하는 자세로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자칫 우리는 들고 있는 시계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이 관념적인 세계를 놓치기 십상이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속도에 관한 이야기보다 삶의 구속된 사고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시인 안도현은 여기서 질문한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나, 이것은 모르는 잘 모르는 일'[1]이라 말하며, 과거의 있었던 흔적을 조금씩 되찾아간다. 자칫 과거의 행보를 되새김질하는 일은 매우 지루하고 고루한 표현을 안기 쉬우나 동심에서 관조하려는 그의 자세에서 무게가 실리고 언내 탄성을 내며 웃음을 머금게 된다. 시는 죽어 가는 추억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추억으로 표현된다.

해직교사의 연가(戀歌)

그의 시나 글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스며들어져 있다. 때로는 소설 '짜장면'에서처럼 작가 자신을 나레이터로 등장시켜 회상하며 동시대의 청소년을 이해하려 하고, 때로는 '연어'에서는 아이와 어른과의 교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작품 속의 풍경은 사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관찰에 의한 묘사가 아니라 의식 속에 지리잡고 있는 영상을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한 풍경'[2]이므로 80년대 전교조 해직교사인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다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시 전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운 이리중학교'라는 시를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된 학교를 만나게 된다.

아이들 쑥쑥 키가 크는 소리
체육 선생님 목에 달린 호루라기 소리
담배 피우다 교무실에 잡혀와 귀싸대기 맞는 소리
...(중략)... 하늘 속으로 축구공 차올리는 소리
운동부 학생들 칠면조같이 악쓰는 소리
유리창에 매달린 붉은 저녁놀이 보채는 소리
심야자율학습 감독 선생님 짜장면 후룩후룩 먹는 소리
형광등에 모기며 나방들이 날아와 붙는 소리
퇴근하고 전교조 사무실로 향하는 선생님들 발소리
적막 속으로 먼동 트는 소리[3]

무덤덤한 표현으로, 그야말로 적막한 이 시에는 미세한 풍경들이 담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이어서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사실들이다. '창작과비평사'에 출판한 1989년 '모닥불'이라는 시집은 해직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보충수업'에서 '애들아 나도 내 따뜻한 동지로 날아가고 싶어'[4]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이는 안도현의 시를 이해하고 시작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된다. 만약 그가 말하려고 하는 추억을 무시한다면, 어떤 면에서 시들은 흔하디 흔한 연가(戀歌)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이 없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사랑쯤으로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곳곳에 숨어있는 암담한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좀 더 진지한 삶을 위한 희생, 학교에서 정책성을 파악할 무렵 타의에 의해 교권을 버려야하는 비참한 현실과 주위의 시선 앞에 살아온 시간에 대한 회고이다. 그리고 교실을 떠난 뒤 남은 것은 동지를 잃은 아픔이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지식인의 갈등은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때가 아니다/ 내
가
불러야 할 노래는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들아갈 때가 아니'[5]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적 배경은 참교육 이름 아래 전국교원노조의 본격적인 발등은 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단순한 노조운동 차원의 문제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지적 사항들이었다.

교육학을 배우고도 60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사회가 바라는 대로 행하기란 정말 어려운 현실이었다. 물론 현재에 와서 이러한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말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주입식과 암기식 단편 상식을 외워서 말하는 수준이 이어졌다. 학교의 격차는 사회적 차이로 만들어졌고, 80년대 교육은 대학입시, 명문대를 향한 명문대를 위한 교육으로 모아졌다. 누구든 반론을 제기해야 할 부문이고, 경제력 중대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부딪쳤고, 교사 해직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들출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전교조만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은 이미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민정부 탄생이 이루어지는 해까지 계속된다.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행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회의 오류를 감추기란 힘든 상태였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알려 주기도 힘든 상태였다.

오늘도 나는 갑니다 해직교사가 되어
내 어릴 적 걷던 것처럼 들길을 걸어 국민학교도
시내버스 타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갑니다
전교조신문 나르고 설문지 나누고 서명도 받으며
어떤 날은 굴비도 팔고 연하장도 팔러 교무실로 갑니다라면 끓여 먹고 후딱 설거지 한 뒤 담배 한 대 피우고
교장이 앞에서 막아도 교감이 옆에서 눈치해도 갑니다
지자배배 지자배배 등교한 아이들 가방 보며
학교로 가는 길에 그렇그렇 눈물도 고입니다[6]

그에게 있어 학교는 삶의 터전이었고, 아울러 사회의 진실을 전달하는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은 제아무리 다듬고 절제된 시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눈물조차 말하지 못한다. 그는 앞선 시에서처럼 마치 소설을 쓰듯,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화를 쓰듯 시를 써 나간다. 그러므로 안에서 느끼는 소박한 정(情)과 은근히 들려주는 이야기는 깊은 경험에서 물어 나온다. 그의 연가(戀歌)는 화음으로 이어진다.

연탄의 연가(戀歌)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그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대담하게 다그친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이며, 동시에 충격적인 이 말은 무던히 관심 없이 살았던 생활에 반전을 가져다 준다. 무언가를 노래하기 앞서 그의 말은 시가 가진 근본적인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연탄재라는 표현에서 말하듯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정신이 곧 사회에 필요한 지식인의 자세라 과감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연탄재를 함부로 차는 사회 분위기를 유추할 수도 있다. 그저 쓸모 없어 보이는 그것을 버리고 묻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 사회에는 연탄처럼 자신을 태우고 쓰러져 가는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다. 역사라는 이름 앞에 묵묵히 자신이 만들어야 할 삶을 위해 희생한 이들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 평가가 다르게 되기 일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 관점이 바로 잡히는 일이다. '연탄 한 장', '반쯤 깨진 연탄' 등의 시를 통해 '너에게 묻는' 질문을 연장시켜 나간다. 한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그가 겪어던 사회의 큰 벽과 경제적 빈곤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힘들이 연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연탄은 그 자체로 멈추거나 욕의 배설처럼 감작스로운 감정단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이의 계획으로 연결되어간다.

안도현의 시가 읽기가 쉬우면서도 그 내용은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동화처럼 시를 쓰기 때문이고, 노래하듯 율조리기 때문이고,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기점으로 하여 지나간 과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의 언어 속에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주류이루지만, 다양하게 펼쳐지는 질감 때문에 생각은 깊게 더 깊어진다. 시어는 마치 황혼에 젖어드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색의 장으로 안내를 한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게
사람이라고 썼어다네
집안에 도둑이 들면 몰리쳐 싸우는 게
사람이라고 썼어다네
가진 것 없어도 더러운 밥은 먹지 않은 게
사람이라고 썼어다네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씩 찾으러 떠나는 거라고
그 뜨거운 연애 편지에는 지금도 쓰여 있다네[7]

'연애편지'는 '연탄'에서 얻어지는 감정이 낭만적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애편지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작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그것은 이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보다 초자아에서 얻어지는 매우 윤리적인 면이다. 이와 같이 안도현의 시는 소재가 일상에 느끼는 권안한 무언가로 구성된다. 읽으면 되씹을 수 있는, 그러나 가볍지 않은 연가(戀歌). 연탄은 활활 타오르고, 사람은 그 연탄을 토대로 번져간다.

연가(戀歌) 그 후

안도현의 시는 한편 읽고 평가할 수 없다. 그의 다채로운 색깔을 느껴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연재소설과 같은 그의 시들과 동화를 읽어보아야 한다. 대중의 편협한 문화에 반기를 들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빛깔을 잊지 않는 것이 삶이라, 연어와 양파라는 소재로써 말을 대신한다. 이처럼 그의 시는 하나의 소재가 하나의 잠재되었기 보다 다양한 소재가 여러 시에 걸쳐 중첩된 대화를 하며 움직이고 있다. '나의 경제는 이라는 시와 '아내의 봄'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도모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만원을 준다.[8]

아내는 토끼처럼 오돌오돌 떨었습니다.[9]

두 시는 사뭇 다르지만, 그 내용이 가진 숨은 뜻은 이어진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에 대한 장막을 이겨내야 하는 대한민국 가정주부로써 다짐들이 남편의 관점에서, 남편의 모진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야기되고 재반복된다. 그렇다고 작가는 아내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솔직한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냉혹함을 더욱 진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A문화가 B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 아이가 어른을, 어른이 아이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연탄이 사람을, 사람이 연탄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를 학생이, 이 다양한 A와 B문화 사이에서 대화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간다.

안도현은 일상에서 얻는 소재로 참 많은 글을 만들어내는 작가이다. 요리사로 비유한다면 일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 줄아는 요리사와 같다. 한 장르에 국한되어 작업하기보다 혼성화하는데 그 중심을 실어주시지만, 어느 글을 읽던 안도현이 쓴 글임을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는 유지된다. 쉬운 글을 쓰면서 내용의 무게를 감동과 함께 전달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지만, 그가 생활한 교직의 숨은 장기를 빌려 유유히 대화를 하고 있다.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다. 작가가 견딘 긴 시간을 작가만이 겪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네 가슴 깊이 오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장막이 무거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작고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다고 절망할 때, 잃어버린 시간이 아쉬워 다시 잡고 쉬을 때, 안도현을 산책해 본다. 권안한 마음으로 그를 읽으면 '고여 있어도 어느 틈엔가 새 살이 생겨나 그옥해지는' 사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쓴잔으로 달게 마실 수 있는 노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동작과 무서운 박자 속에 흘려가듯 부르는 힙합이나 댄스음악 이외에 편안하고 의미를 찾는 이 느린 연가(戀歌)를 한 번 상상하고 느껴봄이 어떨까. 마음 깊게 외롭다고 느낄 때 당신만의 고독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 위한 배려와 이해, 그것을 통해 보는 사회의 쟁점은 무던히도 깊었던 지난 우리의 암울한 혁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1)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1994년 문학동네 P48
2) 오규원 [현대시작법] 1997년 창작과비평사 P98
3) 위의 책 P122~123
4) 안도현 [모닥불] 1989년 창작과비평사 P65
5)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1994년 문학동네 P56
6) 위의 책 P84
7) 안도현 [그대에게 가고 싶다] 1991년 푸른숲 P71
8)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1994년 문학동네 P39
9) 위의 책 P110

당선소감

김정영(일반대학원 화학과 3학기)

시는 사색의 창을 열어가는 과정

시를 읽는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사색의 창을 열어 가는 과정인 듯합니다. 열면 또 있고 열면 있고, 끝없는 반복의 끝에서 만나는 사실은 '무지한 자신'일 것입니다. 시가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듯이 한 편의 시가 작가의 감흥을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작가의 담백한 멋들은 여러 편에 걸쳐 이어집니다. 시를 읽기 보다 시집을 읽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차근히 되새김질하는 시간과 여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 평론은 '안도현'을 이해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시대의 아픔과 작가의 고독과 그 안에서 공존하는 현재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짙어져야 할 지식의 꾸러미도 찾았습니다. 문학상이라는 명패이전에 평론을 쓰는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변치 않은 글을 성의껏 읽어주신 심사위원과 학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잊지 않았던 친구들, 부모님께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작가의 흠집을 잡는 작업이 평론이 아니라, 그 작가에 대한 이해와 시대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것이 평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경해한 이 작업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글을 끝까지 읽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될 이름 모를 그 분, 지식인으로써 제몫을 다하는 힘, 그 무한한 힘을 함께 하게 될 그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심사평

김형필(시인 이탄)
(한국어교육과 교수)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흔히 어느 시인의 시, 두 서너 편을 읽는 것이 고작이다. 시집을 어찌다가 읽을 수도 있겠으나 한 시인의 시집을 다 읽기란 어려운 일이다.

「연가를 부르는 시인」을 써낸 김정영은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한 권을 읽고 이 글을 썼지만 '안도현을 산책'하는 것을 볼 때 안도현의 다른 시집들도 읽었다고 생각된다.

일상에서 얻은 소재가 시가 되는 과정은 대개 비슷하다. 그런데 안도현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 시인과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이 다소 희미하다. 그렇지만 핵처럼 중요한 이미지는 배부른 자가 아닌 가난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아내와 정직한 시간과 따뜻한 시간을 노래하는 잔잔한 배경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배경을 잘 포착하였고 나만이 아닌 이웃을 위한 '쓴잔'까지 노래하는 폭넓은 배경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지은이의 말대로 그것은 '암울한 역사'까지 이르는 것이다.

서민의 생활 속에서 상처가 상징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부문 가작 - 정대진(법·법학 98)

북한법과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법적구현에 관한 연구

Ⅰ연구의 목적

북한소설 『벗』의 앞머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정진우 판사는 지금 괴로운 심정에 휩싸여 리혼청구자를 건너다보았다.(중략) 앞상 맞은켠에는 연한 화장내가 풍기는 삼십대의 녀인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다. 변호사가 출장중이어서 며칠 후에 오면 리혼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녀인은 가지 않고 여러 시간을 재판소의 복도에 뿌리내린 듯 서 있었다. (중략) 무슨 사연일가(까)?...부부간의 어떤 생리적, 육체적 부족점 때문인가?...아니, 이 녀인에게는 아들이 있다.(중략) 그렇다면 혹시...남편이 다른 녀자를 좋아해서가 아닐가(까)?...그는 치정문제가 아니기를 바랬다. 성격상 차이나 시부모와의 관계문제일지도 모른다." 백남룡 『벗』(1988:살림터,1992),14-15면

판사, 변호사, 이혼, 치정문제, 성격상 차이나 시부모와의 관계. 남한에서도 이혼소송을 다룰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북한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인민재판과 숙청만이 있기에 변호사는 있지도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리는 대목이다.

한 방북작가의 표현대로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소설은 북한에서 1988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작품이다. 있지도 않은 판사와 변호사, 이혼제도를 소재로 삼았다면 이 소설이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되어 널리 읽힐 수 있었을까. 분명히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사이에 인민재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법문화와 사법체계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런 북한 나름대로의 법문화는 무엇이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지배하는 원리로 알려진 주체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있고 그것이 어떻게 북한법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과는 여러모로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주체사상과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기존 사회주의 사상과 법제에 대한 연구방법만으로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고 오랜 분단세월 동안 굳어진 여러 금기사항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주체사상은 북한이 처했던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있기에 그 역사적 특성도 함께 살펴야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분단국가의 특성상 그리고 오랜 반공의식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길지도 모르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연구태도와 해석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주체사상에 관한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그것이 드러나 있는 북한법에 대한 일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발전된 연구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북한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체사상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사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차원적인 문헌분석만이 아닌 북한법과 주체사상의 역사적 형성단계와 정치적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수사나 법조문 해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이면에 놓여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에서의 법과 주체사상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주체사상에 대하여

1.주체사상의 의미와 구조

주체사상은 흔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김일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9.17),『「북한」연구자료집』제8집(고려대 출판부, 1983), 511면

이 개념규정은 1972년에 내려진 것인데 주체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아직까지 이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72년"이라는 시기이다. 이 해에 김일성은 1950, 60년대의 국내권력투쟁과 중·소와의 정치적 경쟁을 끝내고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지도체제인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주석이라는 초헌법적인 지위를 신설함으로써 유일체제를 확고히 했던 해가 바로 이 때이다. 1967년 대숙청 이후로 초헌법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김일성 일인체제를 이 때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주체사상에 대한 기본개념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물론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부터 쓰였던 개념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규정이 1972년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체사상이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김일성 중심 북한 정치사의 흔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주체사상은 이론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김일성주의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된 본래 의미의 주체사상을 가리킨다. 이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알고있는 주체사상은 이보다 외연이 넓다. 김일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컬어지는 김일성주의는 원래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여 이론, 방법을 포괄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그것 그대로 주체사상으로 불리고 있다.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는 김정일의 발언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종석, 「주체사상의 내용과 역사」『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 128면

먼저 이론적인 차원에서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살펴본다. 역사로서의 주체사상은 북한법과의 역사적 형성관계와 함께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정밀하게 체계화되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 철학적 원리는 주체사상의 전체체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명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은 이러한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 명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의해 사람은 세계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말하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뜻한다. 그리고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2)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역사의 운동법칙을 밝힌 것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본질·성격·추동력 등 네 가지 부문에서 사회역사 원리는 자기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먼저 사회역사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라는 명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철학적 원리의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연역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명제는 철학적 원리에서 세계의 주인으로 선언된 사람이 사회역사 원리에 와서 사회역사적 집단인 인민대중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사회역사 원리는 이 부분에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목이 흥미로운 것은 역사의 주체로서 인민대중을 상정해놓고도 반드시 옳은 지도가 여기에 결합될 때에만 그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도의 주체로 수령을 언급하며 혁명적 수령관이 주체사상과 결합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수령"의 일인체제에 정당성을 제공해주며 통치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사회역사 원리는 철학적 원리에서 밝혀진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해서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추동력을 밝히고 있다. 사회역사 원리는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이 운동의 본질을 밝히고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그 성격을 밝혔다. 또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혁명의 추동력을 밝혔다. 이렇듯 사회역사운동의 주체·본질·성격·추동력을 규정한 사회역사 원리를 주체사관이라고도 한다. 이종석, 앞의 글, 131-133면

(3)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모든 정치생활단위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를 실제생활에서 견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도적 원칙은 3개의 명제로 구성되며, 논리적 체계로 보면 그것들은 사회역사 원리에서 밝힌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성격·추동력을 현실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적 원칙은 그 첫 번째 명제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은 1960년대 천명된 주체사상의 초기정식화에 해당하는 테제들이다. 1965년 4월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밝히며 이것이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명제는 "창조적 방법의 구현"이다. 이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하위원칙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전자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모든 것을 풀어가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으로 설명되며 후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인 문제들을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규정된다.

세 번째 명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해온 북한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 사상혁명의 문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원칙은 하위원칙으로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뜻하며 그 기본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선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에 앞세워 나감으로써 대중 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석, 앞의 글, 133-134면

3.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사상은 앞서 살펴본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보다 외연이 훨씬 넓은 것이다. 바로 김일성주의를 우리는 흔히 주체사상으로 부르는 것인데 이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이라고도 불린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는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가리키는 주체사상원리와 이 원리를 정수로 삼으면서 전개되는 이론·방법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의 3대 구성으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체계로 설명된다.

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한 독창적인 이념임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따라서 주체사상 이론서는 김일성주의의 3대구성이 맑스주의의 3대 구성인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즉 맑스주의가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3대 구성을 취했다면 김일성주의는 새로운`역사적 과제와 사상이론적 변천을 반영하여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의 3대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혁명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도방법은 영도체계와 영도예술로 구성된다. 여기서 영도체계는 당, 국가, 근로단체들로 구성되며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는 이 체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영도체계는 수령의 유일 영도체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영도예술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방법, 묘술의 총체"로 규정된다. 즉 인민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종석, 앞의 글, 135-139면

여기서도 인민대중을 움직이고 지도하는 것은 수령이며 인민대중은 수령의 지도 하에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재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도 결국 김일성 일인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론적 뒷받침인 셈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서의 김일성주의로 나타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주체사상이다. 북한이 처한 특이한 상황과 북한내부의 역사적 권력관계를 충실하게 대변했던 것이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외적인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발전한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역사로서의 주체사상을 파악해봄으로써 북한법과 주체사상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주체사상

북한의 법제사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남한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백과사전출판사, 1986)라는 책이 참고할만한 자료로 들어와 있을 뿐이다. 이 자료도 대부분의 북한자료가 그러하듯이 정치적 언술로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고 주체사상과 체제에 대한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법 형성의 시대구분이나 구체적 법령의 제정시기를 알아보는데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책에 언급되지 않은 90년대의 상황도 고려하여 북한법 형성의 역사적 단계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법의 형성단계

(1)제1단계

북한 법제사의 제1단계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로 이름 붙여져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거기서 체제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찾고 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의 법제정사상은 "일제의 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을 제정한데 대한 인민민주주의적 법제정사상"이라고 설명된다. 이런 항일운동의 반제반봉건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제정과 관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유력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권건설경험과 법제정의 귀중한 경험도 참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6) 6면

이런 설명은 192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를 북한법의 기원으로 보는 것으로서 남한에서 이 시기를 북한법의 前史로 보는 것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세창출판사, 1998), 34면 과는 대조된다. 북한의 체제특성상 나타나는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제2단계

제2단계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로 명명되고 있다. 이 시기는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지역에서 정권건설을 하면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한 1946년까지의 역사에 해당한다. 이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일제악법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민의 민주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법의식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곧 혁명실천의 과정이었고 이 실천의 성과를 성문법으로 선포?확인하는 시기가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홍극표, 앞의 책, 16면

이 시기에는 ①민주적 사회정치개혁을 위해 1945년 11월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발표하기도 하고 1946년 2월8일에는 중앙정권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②민주적 사회경제개혁을 위해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등을 채택하기도 하였고 ③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으로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인문과학 심사평

박정근(철학과 교수)

인문학이 심히 소외되고 있는 때에 응모작 심사를 의뢰받아 새삼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편의 논문을 읽고는 실망하고 말았다. 물론 응모학생의 관심과 나름대로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는 점을 되새겼지만, 가작이나 당선작을 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응모자를 격려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지적한다.

[『道德經』의 이상 사회에 대한 일고찰 - 80장 〈小國寡民〉사상을 중심으로 -]의 경우 우선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겨우 '小國寡民'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 정도이고 그나마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몇 줄 안 되는 원문의 우리말 번역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몇 마디씩 빼어먹은 것은 애교로 보아주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荀子'를 '筍子'로 쓴 것은 단순한 실수중의 하나라고 보더라도 "...다고(혹은 라고) 한다"라는 방식으로 글을 이어간 것은 논자의 무책임함은 고사하고 표절일 수도 있다. 논자의 객관적, 논리적 판단이 결여된 채 "...라고 한다"로 이어지는 글은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현대 물리학적 해석]의 경우에는 논문의 주제가 생동감이 있고 전체적인 구성도 짜임새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주제를 풀어간다기보다는 언저리를 맴돌다 주저앉은 모양이 되고 말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다. 비록 이번은 마음같이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할 일은 아니다. 한 편의 훌륭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부디 마음을 되잡아 정진하여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학술

그리고 ④인민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식량공급에 대한 법령과 함께 물가안정, 상업기관들의 관리, 중소공업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들을 제정하기도 했고 ⑤일제잔재청산을 위해 1946년 3월7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3)제3단계

북한법의 제3단계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47년에서 50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당시의 입법방향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강화 · 발전시키는 법규,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 · 강화하는 법규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하는 데에 있었다.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연 법?)연구총서 제8권, 도서출판 아시연, 1999), 11면

이 시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실시와 미소공위의 결렬(1947.8.12) 등으로 인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분단의 상태에 접어들던 시기로서 남북한은 모두 각지의 정권기관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우선 ①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위해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 대표선거에 관한 규정"(1947.2.4)을 제정하였고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는 임시적인 역할을 하고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올려놓는 일련의 조치였다. 이와 함께 입법기관인 인민회의도 창설되었다.(1948.2) 그리고 ②인민경제의 관리운영을 위해 1948년 2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호상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③인민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무원 및 기술자봉급개정에 관한 결정서"(1948.4.9)와 "전반적인 초등교육의무제실시에 관한 법령"(1949.9.10)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④조선인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헌법제정사업은 1948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해 2월초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만든 임시헌법초안을 전인민의 토의에 회부하였다. 헌법초안은 토의과정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1948년 7월 9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같은 해 9월 8일 이의 없이 이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공포하였다.

(4)제4단계

북한법의 제4단계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기간으로 불리워진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당시 전시체제입법을 계획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①국가시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입법이 시행된다. 1950년 6월 25일 내각결정으로 "리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를 채택한다. 이 결정으로 1950년 6월 26일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1950년 6월 26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김일성을 군사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국내의 일체의 주권이 군사위원회 수중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이후 각종 통제체계확립을 위한 입법과 전시동원을 합법화하는 법령제정도 계속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북한권력구조에서 나타나는 군의 우위독점, 선군정치 전통의 기원을 이루는 대목으로 보인다. 그리고 ②남반부기지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으로서 1950년 7월 14일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 면, 리(동) 인민위원회의 선거실시에 관하여"를 제정하였고 남반부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1950년 7월 4일 정령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와 내각결정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또 ③전선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함에 관하여"(1950.7.1) 등을 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④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1950.11.20), "해방지구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12.12),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1.1.25) 등 도 진행되었고 아울러 ⑤후방에서 준동하는 계급적 원쑤(수)들을 진압하는 입법 김일성의 "포고문"(1951.2.24), 군사위원회 결정 "적에게 임시 감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기입하였던 그들을 처리함에 관하여"(1951.1.5) 등 도 실시되었다.

(5)제5단계

북한법의 제5단계는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로 명명된다. 이 시기에는 ①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해 전시 최고기관이었던 군사위원회와 그 이하 각 지방군정부를 폐지하고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복구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구역) 인민회의선거에 관한 규정"(1956.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1957.6.27) 등 그 밖에 ②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 당중앙위원회 지시 "농업협동경리조직문제에 대하여"(1954.1), 농업성령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4.8), 내각결정 "조선생산협동조합기준규약"(1955.2.15) 등, ③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조성사업을 위한 입법 내각결정 "전력부문의 긴급시 사업조치"(1953.7.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건설위원회를 조직함에 관하여"(1953.6.8) 등, ④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내각결정 "보통교육부문 각급학교 교육사업을 일층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56.3.9),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교육의무교육제 실시준비에 관하여"(1955.3.11) 등, ⑤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한 입법 내각결정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농업현물세의 부과에 관하여"(1955.2.3),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대책에 관하여"(1955.8.11) 등 등이 실시되었다.

(6)제6단계

북한법의 제6단계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이름 붙여진다. 이 때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다. ①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1962년 8월 8일 정령으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이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자기들의 대표로 선출한 대의원들이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②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내각결정 "성, 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1963.11.26), "중앙기관들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한데 대하여"(1965.1.11) 등을 제정 ·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③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한 입법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1964년 7월1일 내각결정으로 "탁아소, 유치원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대하여"와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 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한데 대하여"(1988.10.31) 등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④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도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들과 전력공업,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박사원과 과학연구소들을 설치하는 입법들이 포함된다. 내각결정 "기계공업을 정비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킨 데 대하여"(1961.12.4), 내각결정 "석탄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킨데 대하여"(1964.1.8),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한데 대하여"(1965.8.30), 내각결정 "대학 및 과학 연구기관들에 박사원 및 과학연구소들을 설치하여 연구원들에 특별반을 조직한 데 대하여(1961.2.17) 등 이외에 ⑤인민생활을 계획적으로 높이기 위해 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법령 "협동농장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1964.3.26)를 제정 · 실시하였다.

(7)제7단계

북한법의 제7단계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로 명명된다. 이 시기는 북한이 1948년부터의 인민민주주의헌법단계를 벗어나 사회주의헌법단계로 들어서는 1972년 이후의 시기를 지칭한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마무리하고 북한이 전국가체제를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의 체제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 체제의 실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법제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①사회주의헌법(1972.12.27)이 제정되었고 ②이에 기초하여 국가, 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실시되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4.8.3),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라 함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국가적 조직활동을 말한다. 즉 모든 법령과 당의 지시에 대해 전인민이 이를 모든 생활분야에서 지키며 활동할 것이 요구되는 특수한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달곤 · 신영호, 앞의 책, 28-31면 을 강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규정" 등이 제정되었고 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③또 사상혁명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④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입법 북한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3대 기술혁명과업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벌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⑤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입법 정무원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74.12.29), 주석명령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1982.8.19) 등 ⑥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1972.3.21), 정무원결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1972.3.30) 등 ⑦사회주의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재판소구성법, 민사송법, 합작법, 변호사법, 국적법, 토지법 등이 전면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홍국표, 앞의 책, 278면 이하 참조 등이 시행되었다.

(8)제8단계

북한법의 제8단계는 "김일성 이후의 법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해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볼 수 없지만

… 〈후략〉

심사평

이장희(법과대학 교수)

I. 논문의 형식 평가

첫째,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문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북한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역사적 배경, 정치적 과정에서 구명하려는 논문이다. 그래서 북한법과 주체사상에 대한 일차원적인 문헌연구만이 아닌 역사적 형성단계와 정치적 과정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방법, 연구목적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둘째, 논리의 일관성: 본 논문의 진행은 주체사상의 의미와 구조,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법적 구현, 북한법과 주체사상, 맺는 말 순으로 일관성있게 논리를 전개하였다. 특히 맺는 말에서 단순히 법질서를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안되면 상호 법문화와 전체적인 법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을 중시한 점이 돋보인다.

셋째,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 구비

학술논문으로서 가장 기본 요건인 논리성, 자료에 근거한 논증을 한 점, 가능한 중립적인 용어를 쓴 점, 1차적인 근거자료의 제시 등에서 학술논문의 형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II. 논문 내용의 평가

1. 분석방법의 창의성: 주체사상과 북한법을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 정치적 과정, 국제정치적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인 점에서 분석방법의 창의성을 지닌다.

2. 연구과정의 논리적 설득력: 주체사상은 흔히 "혁명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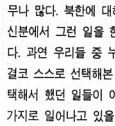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주체사상은 그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원칙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1972년 북한헌법개정에서 김일성 1인 주석제 도입이후 주체사상은 위의 본래 의미와 기본 원리와는 달리 객관성을 잃고 김일성 1인체제를 지지하는 김일성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왜 주체사상이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명료하게 규명하였다.

3. 균형감각 유지: 본문은 주체사상과 북한법에 대해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균형감각 있게 논증하였다고 본다. 또 가능한 북한에서 나온 원전을 직접 인용한 점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혀준다.

III. 전체적인 총평

물론 본 논문은 북한용어 설명의 미흡(예: 인민참심원의 설명 없음), 주체사상을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의 설명 부족(예: 중소이념분쟁 설명부족)이라는 점에서 보완할 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논문형식에서도 학술논문의 요건을 갖추었고, 논문내용면에서 어렵고 민감한 주체사상과 북한법의 특성의 관계를 재판기관, 검찰기관 그리고 법무생활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매우 쉽고 설득력 있게 학술적으로 논증한 점에서 북한법 이해와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 연구의 가작 당선을 계기로 북한법 연구가 미흡한 한국학계에 젊은 북한법 연구자가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선소감



정대진(법 · 법학 98)

금기의 벽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

금기가 넘쳐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금지곡이 되었고 "거짓말이야"란 사랑노래도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헌법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정부가 나서 젊은이들의 머리와 치마길이를 '걱정' 해주던 시절이었다. 지금 보면 어처구니없고 웃기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온 세상이 그런 곳이었다. 코미디 같은 세월을 피와 눈물로 넘어야만 했었다. 그런 세월을 끈덕지게 싸워 이겨냈기에 이제야 우리는 조금씩 금기를 깨고 약간은 자유로워진 듯하다. 하지만 금기의 벽은 아직도 높기만 하다. 대통령이 '북과' 의 '수괴' 를 만나고 민간인들이 '미수복영토' 에 배를 타고 왔다갔다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북한에 대해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불경' 스런 일일지 모른다. 특히 꼬투리 잡히기 쉬운 학생의 신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 모르는 철부지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에 가까운 문제의식이 하나 있다. 과연 우리들 중 누가 스스로 처음부터 그런 금기에 대해 동의한 적이 있었던가하는 점이다. 우리는 금기사항을 교육받고 주입당했지 결코 스스로 선택해본 적이 없다. 북조선, 인민, 주체사상 따위의 단어들을 터부시하는 것은 술 · 담배를 멀리하거나 끊는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했던 일들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게 길들어져 남한 국민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남과 북이 서로 높게 쌓아온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과 북은 진정한 통일을 위해 그간 쌓아온 금기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에 한몫하는 심정으로, 남쪽에서 혼자 금기의 벽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번 글을 썼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혼자만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메아리를 듣게 됐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좀 더 용기를 내야겠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더욱 채찍질을 가하는 기회로 삼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세월 금기의 벽을 넘기 위해 온몸 바친 모든 분들,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 학교생활의 기둥이 되어준 통일문제연구회 식구들과 이장희 선생님, 그리고 홍성근 선배님, 밀바닥부터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오랜 친구 계룡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조국통일만세.

인문과학 심사평

김병환 (철학과 교수)

「'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철학적 소고」는 그 내용상 학부생의 수준으로는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논문의 구조상 결론이 본문의 논의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본문의 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내용상으로는 논자의 지적 열정은 알겠으나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 상당히 산만한 느낌을 받았다. 표현에 있어서도 군데군데 '학술논문' 의 성격과 어긋나는 들뜬 감정의 편린들이 보인다. 이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용모한 글 중 학술논문의 성격에 부합되는 요소들을 나름대로 갖춘 글이므로 논자의 정진을 바란다. 「한국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실존" 엿보기」는 논자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듯이 논자의 주제와 관련해서 왜 '이문열' 과 '최인훈' 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는 응모한 분야가 '학술논문' 이지 '문학비평' 이나 '독서감상문' 이 아니기 때문에 논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개진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를 소홀히 다루었다.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 심각한 문제는 회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자의 살 속에서 문학과 철학의 만남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평자의 기쁨이었고 개인적으로 문학과 철학이라는 글쓰기 경계를 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한 편의 독립된 논문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 논평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2년, 외대엔 과연 특별한 것이 있을까?

개강하면 만날 사람들과의 첫만남의 장소
(근데 겨울에 하는 행사가 아니던가 ~:)

학과 이외의 마음 속에
품어온 꿈과 끼를 한번 펼쳐 보자구요!

세상과 학교의 부조리를 없애
좋은 학교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학생회로 ~v

야호~대학생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대에 합격한 02학번 새내기입니다.
제 대학생활 목표는 다소 소박합니다.
장학금 세 번 받기(원래 다섯 번이었는데 다른
애들한테 미안해서 줄였답니다) 쭉쭉빵빵한 여자친구 사귀기
(전지현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네요)
외국어 3개이상 통달하기 정도입니다. 제가 좀 욕심이 없죠? ^^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님들!
대학생이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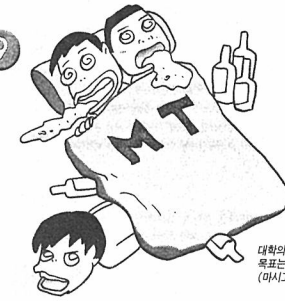
술과 노래가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
하지만 무엇보다 단결과 화합이 먼저겠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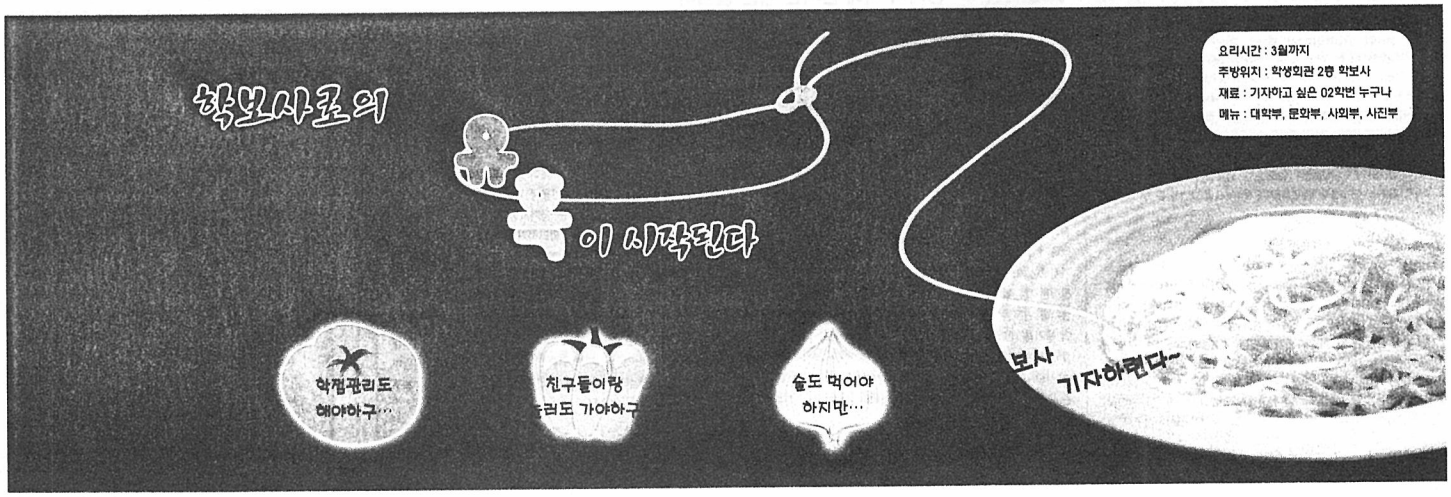
매년 열리는 UN총회 각국의 대표로 나선 학생들
을 만나 볼까요? (전부 원어로 진행해요)

도시를 벗어나 自然과 함께 하는
새로운 배움의 시간 (생각보단 너무 힘들어 ㅠ.ㅠ)

서울과 용인 각각 1년씩 학생들이
직접 펼치는 세계문화 축제의 장.
앙! 멍색이 외대인데!

미국, 프랑스에만 영화가 있는 건 아니다.
각국의 영화 다 틀어! (궁싸지요 크크)



대학의 꽃 모꼬지(M.T)
목표는 분명 화합이에요
(마시고! 토하고 가 아니야! -_-)

구성 :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컷 : 김진태 (서반아어 87)
외대학보 38기 ggorro.com